

현대차 연간 R&D비용 3兆 돌파 **10**



美 AMC 록스타상 받은 삼성리서치 레인 박사 **21**

중3·고3 '9일 온라인 개학'...수능은 12월 3일

코로나 감염 위험성 여전

초4~6·중1~2·고1~2학년 16일
초1~3학년 20일부터 원격 수업
유치원·어린이집은 무기한 휴업

월	화	수	목	금
6	7	8	9	10
13	14	15	16	17
20	21	22	23	24

※ 4월 9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수업일수에서 간주 휴업
※ 출처: 교육부

국내 초·중·고등학교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정은 2주일 연기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 개학은 학년·학급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9일 온라인 개학한다. 일주일 후인 16일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이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20일 초등학교 1~3학년이 영상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1~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은 온라인 개학 후 이틀간 원격 수업 적응 기간을 둔다. 적응 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고,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된다.

이번 온라인 개학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제외됐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원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한다.

모든 학교와 교사는 1일 본격적으로 원격 수업 준비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학교에 원격 수업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한다.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시·도별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 계획을 마련

하고 장애 학생의 경우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한다.

실습수업이 주요한 직업계고교의 경우 기간 집중 이수제를 활용해 온라인 개학 시기에는 전공교과 이론수업을, 등교 이후엔 실습수업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교사 준비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원격교육 시범학교 490개교를 운영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1만 커뮤니티' (17개 시·도교육청별 커뮤니티)에 공유해 교원 역량 제고에 나선다.

신학기 개학일이 확정됨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 일정도 줄줄이 연기된다. 11월 19일로 예정됐던 2021학년도 수능은 2주 연기된 12월 3일 실시된다. 또 중간·기말고사 등 학교별 내신 일정 등도 늦춰지는 만큼 대입 수시전형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연기된다. 유 부총리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 19 진행 상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원격 수업과 출석 수업의 병행 등 탄력적 학습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익숙했던 교실 수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학교 교육의 미래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관련 2·4·6·8·9·17·19면



중고 주방용품 쌓인 황학동 거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생산과 소비가 얼어붙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국내 최대 중고 주방기기·식기류 거래 시장인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의 매장마다 폐업한 음식점, 카페 등에서 나온 주방용품들이 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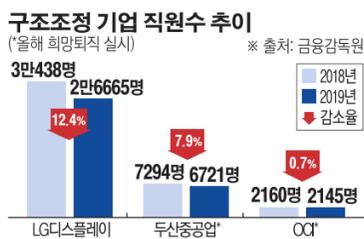
신태현 기자 holijjak@

코로나發 경기침체에 '해고폭풍' 몰려온다

작년 대기업 10곳 구조조정 LGD·두산重만 4300여명

지난해부터 희망퇴직 등 특단의 카드로 긴축경영에 들어간 기업 10곳이 4000명 이상의 직원을 줄이면서 급여 총액도 약 7000억 원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항공공사들은 지난해 사실상 인력 조정을 안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쇼크를 받아 최악의 고용 상황까지도 우려된다.

31일 이투데이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수, 급여 등 고정비 추이를 조사한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총 직원 수는 4369명 줄었으며, 총 급여는 6673억 원 감소했다. 조사대상 기업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현대제철,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OCI다.



직원 수와 그에 따른 급여가 크게 줄어든 곳은 LG디스플레이와 두산중공업이다. LG디스플레이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적자에 신음하다 결국 지난해 11월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한 해 동안 3773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고, 이에 따라 줄어든 급여, 복리후생비 등 고정

비는 6313억 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올 들어 직원 대상으로 '명예퇴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탈원전 정책 등으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탓에 이미 지난 한 해에만 573명이 회사를 떠났고, 3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됐다. 이외에 올 들어 4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 대우조선해양, 군산공장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한 OCI 역시 직원 수가 각각 171명, 15명 줄었고, 총 급여도 90억 원, 266억 원씩 감소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 수는 각각 4.4%, 1.9%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장 상황이 좋았으며, 7월 '보이콧 재팬' 여파가 다소 있었지만 일본 노선 수요만 줄어든 상황이라 당초 계획대로 신규 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 10면에 계속 하유미 기자 jscs508@한영대 기자 yeongdai@

국민연금 1월 수익률 0.6% 그쳐

국내 주식은 -2.92% 기록

국민연금기금의 올해 1월 말 기준 수익률이 0.6%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국내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에 진입하면서 수익률을 끌어내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연초 이후 1월 말까지 기금 전체 수익률이 0.6%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설립 이후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32%, 누적 수익금은 총 371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말 수익률이 0%대에 머문 것은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이 코로나19 여파로 -2.92%로 떨어진 탓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은 연후 이후 코로나19 국내 확산자 발생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피지수는 연초 이후 1월 말까지 3.58%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주식 시장(MSCI ACWI ex-Korea, 달러 기준)은 0.16%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 국내주식 외 다른 자산 수익률은 △해외

주식 2.13% △국내채권 0.68% △해외채권 4.04% △대체투자 1.55%를 각각 나타내며 간신히 플러스권을 지켰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해외주식은 전염병 우려로 등락이 있었으나 경기 개선과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로 수익률이 상승했다"면서 "국내채권과 해외채권은 국내 및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됐으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 전망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리가 하락했고 그 결과 평가이익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화 환산이익 또한 증가하며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기간 3년물 국고채 금리는 4.3bp(1bp=0.01%) 하락했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33.2bp 떨어졌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대체투자 자산의 경우 1월 말 이자·배당수익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화 환산이익이 수익률로 반영됐다. 다만 연도 말 기준 연 1회 공정가치 평가를 하므로 연중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브랜드 파워까지 바꾼 코로나 쿠팡 12계단 오른 42위...이커머스 '약진' 롯데百 23위서 48위로...여행·항공 '고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기업 브랜드 가치까지 바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 근무를 하거나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항공·여행 관련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 반면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이커머스 기업들은 약진했다. 31일 브랜드가치 평가기업 브랜드스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브랜드스타지수(BSTI)는 예년보다 변동폭이 컸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습관의 변화가 브랜드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커머스 업종들은 대부분 두 자릿수 순위 상승이 이뤄졌다. G마켓은 11위에 올라 이커머스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5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이커머스 기업만 4개에 달한다. 50위권 내의 이커머스 브랜드는 11번가(21위), 옥션(26위), 쿠팡(42위) 등이다. 옥션은 전 분기 대비 16계단 상승했고 쿠팡은 50위권 밖에서 12계단이나 뛰어오르며 인지도를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 브랜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순위 하락이 이어졌다. 전체 브랜드 순위 2위였던 이마트가 3위로 내려앉은 것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롯데하이마트는 10위에서 13위로, 롯데마트는 13위에서 26위로, 롯데백화점은 23위에서 48위로 각각 추락했다. 33위였던 신세계백

화점과 50위였던 홈플러스도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는 여행·항공 관련 브랜드도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인천공항이 5위에서 9위로 밀렸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각각 50위, 55위까지 순위가 하락했다. 하나투어 역시 전 분기 19위에서 24위로 밀렸다. 한편 브랜드 순위 1위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브랜드 삼성 갤럭시가 차지했으며 카카오톡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 KB국민은행, 롯데월드 어드벤처, 신라면, 신한카드, SK텔레콤이 톱10에 포함됐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LG전자·화학·이노텍·상사
인니정부 지원 요청에 화답
국내 생산제품 여유분 확보

경총·소상공인연합회
영세 식당 선결제·재방문 등
‘착한 소비자 운동’ 업무협약

LG, 印尼에 진단키트 5만회분량 ‘쾌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계가 국내외에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상사 등 LG그룹 4개사는 31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5만 회 검사 분량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기부한다.

진단키트가 부족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원 요청을 했고, 현지 진출한 LG 계열사들은 그간 현지 고객과 거래선들로부터 받은 성원에 화답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국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차원에서 기부를 결정했다.

지원될 진단키트는 LG 계열사들이 긴급하게 나서서 국내 생산제품 중 여유분을 확보한 것이다.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방지청(BNPB)에 샘플 테스트용으로 일부 진단키트 물량을 보냈고, 최근 관계 당국이 테스트를 완료했다.

윤춘성 LG상사 CEO는 이번 기부에 동참한 LG 계열사를 대표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 국민의 단합 정신을 기반으로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임용(왼쪽 세 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경총

며 “작은 정성이지만 인도네시아 국민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서신을 통해 밝혔다.

LG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TV·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 공장 등을 운영한다.

LG화학은 석유화학 해외지사 등을 갖췄고, LG이노텍은 디지털 튜너 등 전자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LG상사는 식량 및 에너지 자원과 산업 인프라, ICT(정보통신기술) 및 헬스케어 관련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고 참여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착한 소비자 운동’은 단골 식당 등 소상공인 업체에 선결제를 진행하고, 이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운동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착한 소

비자 운동’ 참여 제한에 대해 경총이 호응하면서 이뤄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로 매출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용기를 북돋우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선결제 운동을 함께하게 됐다”며 “‘착한 소비자 운동’을 통해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식당, 카페, 주변 상가 등에서 선결제하여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에 손 회장은 경총회관 인근 식당에서 ‘착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선결제를 하고,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매출이 90% 넘게 떨어지고, 공과금도 못 낼 지경으로 내몰린 극한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총이 이렇게 직접 나서 기업들의 착한 소비자 운동에 직접 나서 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송영록 기자 syr@
권태성 기자 tskwon@

“대한민국 힘내세요” 유통업계 상생 손길

롯데마트, 충북 사과 300톤 매입 ‘반값 할인’ ... 이마트24, 소방공무원 가족 점포 오픈

유통업계가 수출 급감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가맹점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마트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농가들의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소비까지 가라앉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농·어의 농수산물물 약 600톤가량 매입해 판매에 도움을 주고자 ‘대한민국 농가 힘내세요’ 행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사과 농가를 위해 충주시와 충북원예농협과 3차 협업으로 약 1억 원의

상생 자금을 지원해 수확기 태풍 피해를 입고 소비침체로 출하가 어려운 상차입은 사과 약 300톤을 매입해 50%가량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충주 농가돕기 사과(4kg/박스·사진)’를 9980원에 선보이며, 2박스를 구입하면 각 898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취급 농가들이 학교 급식용 출하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파와 양송이, 양파 등 140여 톤의 친환경 농산물을 선보이는 ‘친

환경농산물 기획전’도 진행한다.

또한 2일부터 8일까지 ‘活(활)전북(중/10마리)’ 약 50톤을 1만9800원에, ‘통영 멥게(150g)’ 약 20톤을 기존 판매가에서 40% 할인된 2980원에 내놓는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수출이 급감한 ‘바다장어(500g)’도 약 20톤 물량을 확보해 1만 4800원에 선보인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자 사회공헌형 편의점 모델인 ‘소방공무원 가족 점포’를 추가로 오픈하기로 했다.



핀하기로 했다. 직무 수행 중 순직 또는 공무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가족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매출이 검증된 기존 직영점 5곳을 소방공무원 가족 점포로 전환한다. 점포 매출이 늘어나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구조로, 임차료와 관리비 등 각종 운영 비용은 이마트24가 부담하기로 했다.

2017년 9월 대한소방공제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처음 선보인 소방공무원 가족 점포는 이번에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전북에 5개점포를 추가 오픈해 총 12개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마트24는 올해 10여 점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GS25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월 20억 원 규모의 △점포운영 지원 △금융 지원 △영업 활성화 지원 △피해 지원을 하고 있다. CU도 휴업 점포에 대해 간편식품 100%를 폐기 지원하고, 전문업체의 방역 비용도 100% 부담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의 퇴직 직원 모임인 ‘세사모’는 최근 성금을 모아 마스크 2600여 개를 마련해 대구·경북 지역 가맹점 520여 곳에 전달하기도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장애라는 무거운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일터, 편견과 차별을 버리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 1588-1519 www.kead.or.kr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추락’... 무너지는 ‘실물경제’

2월 암울한 경제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실물지표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산업활동지표가 모두 감소로 돌아섰고, 비제조업 기업실리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기업들의 매출이익이 평균 17.5%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계청은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전산업생산이 전월보다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비는 6%, 설비·건설 투자는 각각 4.8%, 3.4% 줄었다.

전산업생산 감소 폭은 2011년 2월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다. 광공업생산은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12월 이후,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가 27.8%, 기계장비는 5.9% 각각 감소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품 수급 문제로 자동차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며 "자동차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 기계장비 등 생산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에서 2.1% 늘었으나, 숙박·음식점에서 18.1%, 운수·창고는 9.1% 급감했다. 도·소매(-3.6%), 예술·스포츠·여가(-27.2%) 등 관광 밀접 산업들이 대부분 부진했다.

소비(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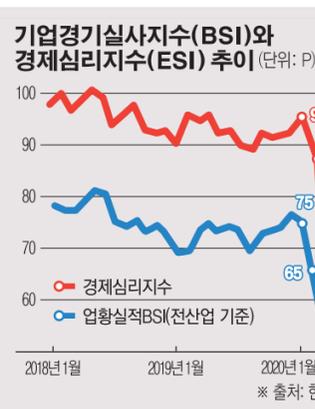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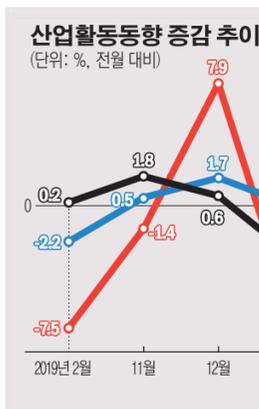
생산·소비, 9년 만에 최대폭 감소
부품수급 차질 자동차 생산 28%↓
숙박·음식점 등 관광산업 충격과
기업경기지수, 역대 최대 낙폭
전경련 "기업 영업이익 19% 감소"

7.5%), 의복 등 준내구재(-17.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가 모두 줄었다. 안 심의관은 "감염 예방을 위한 소비패턴 변화로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가 줄었다"며 "소비를 위해 개인 접촉이 필요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소매업체별로는 대형마트(5.1%), 무점포 소매(8.4%)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줄었다.

투자는 설비투자가 4.8%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기성(시공실적, 불변)은 3.4% 줄며 2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다만 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량 등 토목에서 32.1% 줄었으나 주택, 사무실·점포 등 건축에서 51.5% 늘며 전년 동월보다 28.5% 증가했다.

경기지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0.3포인트(P)로 전월과 같았으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8로 0.7P 급락했다.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기업실리도 급락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전산업 업황실적 기업경기실



사지수(BSI)는 전월보다 11P 추락한 54를 기록했다.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월 이래 최대 낙폭이자 2009년 2월(52) 이후 1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문별로 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9P 떨어진 56으로 2009년 3월(56) 이후, 비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11P 급락한 53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BIS가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다. 부정적 답변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80 전후를 암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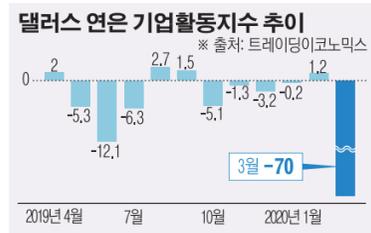
적 기준치로 본다. 4월 업황전망 BSI를 보면, 제조업은 15P 떨어진 54를, 비제조업은 16P 떨어진 52를 각각 기록했다. 전산업도 53으로 16P 추락했다.

지표뿐 아니라 실물경제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 1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가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과 비교해 이달 24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평균 17.5%, 19.0%씩 감소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10곳 중 9곳이 실적 악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단 향후 업황에 대해선 10곳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4.0%, 23.3%씩 줄어든 것으로 봤으며, 주력업종은 수출액이 17.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일자리 4700만개 사라질 수도” 美, 사상 최악 ‘경기침체’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미국이 상상할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빠질 조짐이다. 30%대의 실업률과 20%대의 역성장 등 역사상 보기 힘들었던 비관적인 경제지표가 현실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마저 코로나19 수렁에 빠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코로나19로 미국 내 일자리 4700만 개가 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이 32.1%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구엘 파리아-이-카스트로 세인트루이스 연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분석에는 아예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근로자 수와 최근 발표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이미 지난 10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특이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3월 셋째 주(21일 마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에 비해 28만 건에서 328만 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1965년 해당 지표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또 그동안 이 지표는 단 한 번도 100만 건을 넘는 적이 없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제트 엘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도 이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콘퍼런스에서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이번 경기하강은 매우 빠르고 가파르다”며 “미국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다르다”고 그 심각성을 우려했다. 그는 또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마이너스(-) 20%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손실이 너무 커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지표 이외 다른 경제지표도 사상 초유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 델러스 지역 제조업 활동을 나타내는 델러스 연은 기업활동지수는 2월의 1.2에서 3월 -70으로 폭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이 지수는 제로(0)를 기준으로 경기확장과 위축이 갈린다.

코로나19 진원지로서 그 충격을 가장 먼저 받았던 중국은 모처럼 호전된 경제지표가 나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52.0으로, 사상 최저치였던 2월의 35.7에서 크게 반등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PMI 설문조사는 기업들에 전월과 비교해서 상황이 나아졌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어서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각 지방정부가 소비쿠폰 배포나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에 나서고 있지만 사람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소비가 당분간 침체될 전망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롯데칠성음료

1970년 완행열차 카트 속에

1988년 동네 돼지갈비집에

1998년 소녀시절 소풍날에

2002년 외할머니댁 화채 속에

청량한 기억이 있는
모든 순간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진짜사이다는 그곳에
칠성사이다 70th Anniversary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 확인하세요

종교·의료시설 또 집단감염... 출구가 안 보인다

125명 확진 중 지역 감염 96명
구로 교회 10명, 대구 60명 추가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골칫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방역 구멍

잠잠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하루 새 1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추가 확진자들은 주로 종교·의료시설에서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취약시설 집중 관리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9786명으로 전날보다 125명 늘었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중 29명은 해외 유입 사례이며, 나머지 96명은 지역사회 감염 사례다. 전체 확진자 중 83.8%는 집단 감염과 연관성이 확인됐다.

신규 확진자는 신천지(신천지에수교 중 거장막성전)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종료로 지난달 초부터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전수조사가 완료된 대구 요양병원 등에서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100명 안팎에서 정체돼 있다. 특히 일부 종교·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확산으로 파생되고 있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선 1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었다. 이 중 6명은 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에선 29일부터 이날까지 7명의 확진자가 나와 8층 병동이 폐쇄됐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의 이날 추가 확진자는 각각 24명, 13명이었다.

특히 대구에선 신규 확진자가 전날 14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제2미주병원 관련 133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 110명 등 두 의료기관에서 누적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실요양병원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91명이 확진됐다. 대구의 누계 확진자 6684명 중 545명은 의료기관 등에서 집단감염된 사례이며, 914명은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지역사회 전파 사례다.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사환자와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위반도 골칫거리다. 미국에서 입국해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제주를 여행한 강남구 모녀,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지시받고 외

부활동을 한 폴란드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가 속출하고 있다. 고위험군의 외부활동은 자칫 추가 전파와 이로 인한 시설·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추방과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나마 대구의 병원급 의료기관 61곳에 근무하는 간병인 2368명과 정신병원 16곳에 입원 중인 환자 2415명 중에선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해당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현재까지 각각 97%, 67%가 완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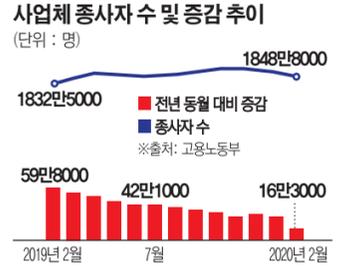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내 상황을 보면 전체 발생 중 해외 유입이나 이미 확정된 확진자와 접촉자 중 발생한 것을 빼고 지역사회에서 전파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현재 9% 정도"라며 "국민과 시설·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2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반타락'

코로나發 '고용대란' 현실화

여행·관광·교육서비스업 타격
비자발적 이직 4.5만명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2017년 12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10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고용 타격을 가할 수 있는 1월과 비교해서는 종사자 수가 14만 명 넘게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0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38만 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만 3000명(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한동안 30만 명대 내외를 지속했던 종사자 증가폭이 2017년 12월(19만 2000명) 이후 26개월 만에 10만 명대로 내려간 것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1월 27일 '경계',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으로 집계된 사업체 고용지표"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2월 고용상황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월의 코로나19발(發) 고용 타격은 1월보다 종사자 수가 14만 3000명(0.8%) 줄어든 것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 중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원을 의미하는 상용근로자(1569만 4000명)가 전월보다 7만 7000명이 줄었으며,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는 임시일용직 근로자(167만 8000명)도 6만 명이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월 대비 14만 1000명 줄었고, 300인 이상 사업체도 종사자가 1000명 감소했다.

산업별에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 관광업, 교육서비스의

고용 타격이 두드러졌다. 호텔 등 관광 숙박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전년과 전월 대비 각각 5만 3000명, 7만 7000명 감소했다.

여행업, 렌터카업 등이 포함된 사업 시설 및 임대서비스업은 각각 1만 2000명 줄었다. 공업업 등이 포함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각각 6000명, 5000명 감소했으며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도 전년보다 1만 3000명이 늘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3만 8000명 줄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소비 부진과 학교 개학 연기 영향이 이들 업종의 종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고용 타격은 이직자(자발적·비자발적) 증가에서도 엿볼 수 있다. 2월 이직자 수(93만 1000명)는 전년보다 20만 8000명 늘었다. 이 중 자발적 이직은 9만 8000명, 비자발적 이직은 4만 5000명 증가했다.

앞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2만 3969곳에 달한다.

고용부는 3월 고용 상황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확대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용 유지 및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공항철도 직통열차 임시중단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교통센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통열차·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4월 1일부터 3개월간 임시 중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 오늘 접수

6개월간 37만5000원 경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50% 감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 전력판매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이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상·충청·경기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주택용은 비주거용으로 한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 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받는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 18일부터 소비자가 받은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후 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이나 콜센터(152-200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신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적으로 제출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

인은 대성에너지(daesungenergy.com)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이나 팩스(053-620-6547)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한 후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 확인할 계획이다.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6개월간의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 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 원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 2500원씩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 5000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지자체 3.8兆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 8000억 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따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효력이 있으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난 관련 기금 용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 긴급재가를 거쳐 1~2일 안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현재 약 3조 8000억 원이 조성돼 있다. 이 가운데 약 15%는 대형 재난에 대비한 의무예치금으로 따로 적립해 관리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부는 법률공포안 60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정부·與 정책 지지” vs “경제 망쳤다” 민심 갈려

‘정치 1번지’ 종료 가보니...

4·15 총선의 변수는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종로는 날씨가 따뜻해졌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상가와 공원은 물론 거리에서도 예년보다 사람 수가 줄었다.

31일 종료 민심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여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입장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종로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후보자로 나선다. 두 후보 모두 당의 간판이자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인지도는 큰 차이가 없다. 결국, 경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공약이 어느 후보에게 있는지가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동 주민인 민서희(여, 72) 씨는 “정부와 민주당은 ‘내로남불’이 심해서 믿을 수가 없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인 것 같다. 비례정당에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며 소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며 이전 총리를 찍겠다고 했다.

삼청동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던 신모(남, 60대) 씨는 “야당은 파벌싸움만 하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느냐”면

“이낙연 신뢰... 與 힘 보텔 것”

“먹고살기 힘들어... 정권 심판”

“밥그릇 싸움 질색” 기권 의사도

서 “패스트트랙 당시 싸우는 모습 보고 보수 정당은 찍으면 안 된다고 마음을 먹었다. 황 대표도 종료 후보자로 나올 거면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이미 늦었다”며 민주당 지지를 밝혔다.

신 씨 옆의 지모(남, 60대) 씨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방역이라든가 대응을 잘해 이 정도에 그친 것 같다. 정부가 잘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을 찍겠다고 했다.

반면 낙원동 일대에선 황 대표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다. 낙원상가의 한 점포 상인(남, 70대)은 “최근 3년간 유동인구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줄었다. 광장시장도 재고가 많이 쌓여 애먹는다고 한다”면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황교안을 찍으려 한다”고 말했다.

점포 바로 옆 식당 주인(여, 63)은 “정책은 모르겠고 일단 경제가 살았으면 좋겠다. 평소보다 손님 수가 10~20% 줄었다”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았는데 정부 대응이 ‘보여주기’ 식인 것 같아서 좀 그렇다. 서민들이 살려면 경제가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나”며 하소연했다.

낙원상가 앞 구뚝방 사장(남, 86)도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 대응도 진작에 대처했다면 지

금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눈엔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면서 ‘정권 심판’으로 황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어느 한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심도 있었다. 동대문 시장 원단 도소매업만 30년 했다는 이모(남, 57) 씨는 “문제인 정부 들어서면서 경제가 안 좋아졌다”면서 “중국 보따리 상인들의 발걸음이 뜰 끊기니 하루 간신히 20~30만 원 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종로구에서만 50년 살았다는 한 남성은 “우리 구에 누가 되든 상관없다. 그동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못 하거나 그런 적도 없다”면서 “정치판에서 종로구가 상징성을 가지는데 누구든 그냥 서민들 생각하고 제대로 일했으면 한다”고 했다.

종로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길에 대화를 나누는 택시 운전사 김모(50대) 씨는 “이번 총선에선 투표하지 않겠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밥그릇 싸움’ 하는 것은 똑같지 않냐”면서 “처음에만 국민을 위한 척하지만 결국 싸움이다. 깨끗한 정치인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현대상선,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 협력 개시

미주 5개·중동 2개 노선 확대... 사명도 ‘HMM’ 변경

현대상선이 4월 1일부터 새 해운동맹(이하 ‘디 얼라이언스’) 협력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노선이 7개 확대되고 주간 선복량도 11.3% 늘어난다. 정부는 현대상선의 디 얼라이언스 협력을 통해 해운재건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대표 원양국적 선사인 현대상선이 내달 1일부터 디 얼라이언스 체제의 협력을 본격 개시하고 사명도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이하 HMM)’로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HMM은 해운재건 정책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통해 2019년 6월 세계 3대 해운동맹의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사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HMM은 내달 1일부터 미주 5개 노선과 중동 2개 노선이 확대되고 주간 선복량도 약 4만3000TEU까지 증가한다. 디 얼라이언스와 함께 화주들에

게 확대된 서비스를 향후 10년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주항로는 그동안 HMM 보유 선박 없이 타 선사의 선박을 매입해 서비스했으나 4월 말부터는 2018년 9월에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 초대형선 2만4000TEU급 12척을 구주항로에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현대상선이 올해 12척, 향후 8척을 추가 투입하면 선복량이 90만TEU로 늘어나 한진해운 파산 이전(105만TEU) 규모에 근접하고 현대상선이 3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하면 해운재건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국내 해운선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휘발유 가격 1300원대로 국제 유가 폭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값이 리터당 1300원대로 내려갔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 선을 밀든 건 지난해 4월 초 이후 약 1년 만이다. 31일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표시판이 1398원을 가리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YES

필승코리아 펀드

필승코리아 시즌2

우량 채권의 안정성을 더한 필승코리아 30(채권 혼합)펀드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우량 기업에 투자합니다

필승 코리아 30펀드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주식에 30%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을 더해 안정성을 키웠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운용보수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지원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기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수수료 외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0835호(2020.02.27~2021.02.26) ※ 환매방법: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2(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4)영업일에 지급 ※ 보수 및 수수료: Class A: 총보수 0.877% (판매 0.340%, 운용 0.500%, 기타 0.037%), 납입금액의 0.5% 이내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운용회사: NH-Amundi자산운용

‘경제성장 바로미터’ 산업용 전력 판매 뚝

1월 감소 폭 금융위기 후 최대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산업용 전력 판매량 감소 추세가 올해 1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이며 심각성이 더해진 것.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부터 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한국 경제를 얼마나 흔들지 예측도 힘든 상황이다.

31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세보에 따르면 올해 1월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2416만 MWh로 1년 전보다 150만MWh(5.9%) 줄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11%) 이후 1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경기 상황을 진단하는 척도로 꼽힌다. 경기 부진으로 공장 가동이 줄고 생산이 감소하면 그에 따라 전력사용량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산업구조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커 전력 사용량과 경기 흐름 간의 연관성이 높다.

산업용 전력판매량 감소 추세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10개월 연속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1월 감소 폭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2월부터는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했고 3월에는 전 세계로 퍼지는 형국이어서 산업용 전력수요는 더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재택근무·온라인 수업에 PC 판매 급증 반도체 ‘언택트 특수’

스마트폰·차 시장 판매 부진 만회
다음주 삼성 잠정 실적 이 가늠자
美 마이크론, 3분기 어닝 톱포 기대

여닝 시즌을 앞두고 대부분의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실적 쇼크 우려로 잔뜩 긴
장한 가운데 의외로 평온한 곳이 있다.
바로 반도체 업계다.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적인 이동제한으로 재택근무가 일상
화하면서 PC가 잘 팔리고 있다며 대부분
의 산업이 수요 감소로 고전하고 있지만,
반도체 업계는 예외라고 3월 31일 보도
했다.

미국 최대 반도체 메모리업체 마이크
론테크놀로지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2020회계연도 2분기(지난해 12월~2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1
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분기(3~5월)에 대해선 낙관
론을 펼쳤다. 3분기 매출은 46억~52억
달러(약 5조6000억~6조 원), 조정 후 주
당 순이익은 55센트대로 전망했다. 모두 시
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마이크론은 재택근무 확산과 전자상거
래, 데이터 센터 활성화를 배경으로 거래
처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재택근무나 인터넷 학습,
게임에 이용되는 노트북과 PC 수요가 확
대하면서 스마트폰과 가전, 자동차 시장
에서의 부진을 만회해주고 있다는 것이
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의 소비 침체는 심각하지만, 반도체 쪽
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별로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산재이 메트로트라 마이
크론테크놀로지 CEO는 “코로나19 사태
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
이턴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며 “다
음 분기에는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에 직
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업계의 대표 주자로 어닝 시즌

마이크론테크놀로지 EPS·블룸버그 아태
반도체지수 EPS 추이 (단위: 달러)



풍향계로 꼽히는 마이크론이 낙관론을
펼치면서 다른 반도체 메이커의 실적에
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인구 대부분이 재택근무 및 재
택학습을 실시하는 가운데, 온라인 서비
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급성장하면
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수요에 박차를 가
해 반도체 메모리 가격 회복을 뒷받침하
고 있다는 분석이다.

DB자산운용의 이승훈 주시책임자는
“사람들의 온라인 쇼핑과 노트북 컴퓨터
를 사용한 재택근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 확실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업계
는 휴대폰과 가전 수요가 줄어 타격을 받
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한계에 도달하
면 반도체 업계가 다른 업종보다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을 이 새로운 트렌드는 시
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증권의
오카자키 시게키 애널리스트는 “사람의
이동이 멈춰도 데이터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음 주 세계 최대 반
도체 메모리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의 잠
정 실적이 발표되면 반도체 업계의 앞날
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
성전자 주식은 3월에 한국증시 코스피 구
성 종목 중 외국인 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른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의 공백을 상당 부분 메꿔줬다.

배수경 기자 sue6870@



日, 출근길 마스크 부대 31일 아침 일본 도쿄의 한 전철 역에서 출근길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승강장으로 바빠 물러가고 있다. 일본 정
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해 긴급사태를 선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날 한국과 중국, 미
국, 그리고 유럽 거의 전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거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총 2677명, 사망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도쿄/EPA연합뉴스

맥주보다 싼 유가... 10달러대 초읽기

수요 위축되며 서부 캐나다원유 한때 배럴당 4.18달러

국제유가 10달러대가 초읽기에 들어
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
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6%(1.42달
러) 미끄러진 20.09달러에 거래를 마쳤
다. 이는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
트유는 8.7%(2.17달러) 떨어진 배럴
당 22.7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 폭락세가 계속되면서 일부 유종
은 배럴당 가격이 고급 맥주 한 잔 가격
보다 싼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서부캐나다원유
(WCS)는 이날 한때 배럴당 4.18달러
에 거래됐다.

캐나다에서 고급 맥주 한 잔 가격이
5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WCS의
배럴당 가격은 맥주 한 잔 값보다 저렴
한 셈이다.

WCS는 WTI보다 품질이 낮아 통상

배럴당 8~15달러 정도 가격이 낮게 형
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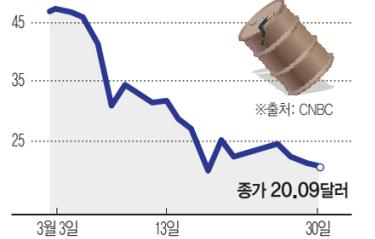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유가 배럴당
4달러대에 거래되는 것은 믿기 힘들다
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내가 직접 거
래 화면을 보지 못했다면 믿을 수 없었
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위축된
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유가
전쟁’에 나서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지난 6일 석유수출
국기구(OPEC)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
들의 연합체인 OPEC 플러스(+) 장관
급 회의에서 추가 감산 협상이 불발된
것을 계기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양측은 가격 인하, 증산 등을 통
한 원유 전쟁에 나섰고, 국제유가는 폭
락했다.

사우디는 이날도 국영 SPA통신을
통해 5월부터 하루 원유 수출량을 사상
최대 규모인 1060만 배럴로 늘리겠다
고 선언했다.

WTI 가격 추이 ※현지시간 기준



미국이 사우디의 공격적인 증산정책
을 압박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5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에게 전화해 증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증산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하기로 했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
화를 하고 유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으
나, 원유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자국내 셰일오일의
생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웃돌아야 한다.

변효선 기자 hsbun@

“내 회사가 먼저”... 글로벌 M&A 찬바람

1분기 6980억 달러 전년비 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글로벌 인
수·합병(M&A) 시장도 끔찍 얼어붙었다. 주
가가 폭락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다른 회사를 사들이는 대신 자사 생존에 총력
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31일(현지시간) 영국파이낸셜타임스(FT)
에 따르면 지난주 글로벌 M&A 규모는 125
억 달러(약 15조2300억 원)로, 주간 기준 글
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최저
치를 찍었다.

1분기 전체 M&A 금액은 총 6980억 달러
로, 전년 동기 대비 28% 급감하고 1분기 기록
으로는 201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레온 칼바리아 씨티그룹 기관고객 부문 회
장은 “대부분 기업이 M&A 활동 정지 버튼을
누를지 고려하고 있다”며 “이에 시장이 단기
적으로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
다. 이어 “모두가 자사 종업원과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현금으로
M&A에 베풀할 회사는 없으며 사모펀드들
도 딜(Deal)을 추구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포
트폴리오 업체 관리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미국 M&A 활
동이 갑자기 위축돼 전 세계 수치가 안 좋아
졌다고 FT는 지적했다. 미국의 1분기 M&A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1% 급감한 2530억
달러에 그쳤다. 반대로 유럽은 2320억 달러
로 51% 급증했다. 보험중개업체 에이온이 경
쟁사인 윌리스타워스왓슨을 300억 달러에 인
수하고 사모펀드들도 활발하게 움직인 것이
유럽시장 호황을 이끌었다. 그러나 유럽 M&
A 대부분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일
어난 것이라고 FT는 상기시켰다.

러시아 스베르뱅크가 중앙은행에서 국영펀
드로 무려 400억 달러에 달하는 지분을 이관
한 것은 유럽 M&A 시장이 변성한 것처럼 보
이는 통계 왜곡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FT는
지적했다. 국경 간 M&A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20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붕괴
속에 세계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 움직
임을 강화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이 문제였던 2008
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없
어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M&A 활동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쌀값은 폭등...6년 반 만에 최고

코로나 사재기·물부족 사태로 태국·베트남 등지서 가격 뛰어

국제 쌀값의 기준이 되는 태국산 쌀
의 수출 가격이 6년 반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고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
이)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물 부족과 염해로 주요 수출국인 태
국과 베트남에서의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사태로 사재기까지 일어난 탓
이다. 쌀값 상승이 지속되면 쌀을 수입
하는 아시아·아프리카의 물가를 끌어올
려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온다.

태국 무역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월
하순 태국산 쌀의 수출 가격은 1당 약
550달러로 2013년 8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베트남산 쌀 역시 1당 400달
러를 넘어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쌀은 세계에서 연간 5억t 정도가 생
산되는데, 내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밀
등에 비해 교역량이 적으며, 국제 수급
변화에 따라 가격이 쉽게 영향을 받는
다.

태국과 베트남은 세계 2·3위 쌀 수출
국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약 40%의 점
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태국의 수출량은 약 1110
만t, 베트남은 약 660만t이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각각 23%, 14%다.

태국의 무역단체는 올해 쌀 수출량이
750만t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
다. 베트남산도 연간 수출량이 크게 늘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주원인은 벼농사에 필수적인 물 부족
과 경지면적 축소다. 닛케이에 따르면
태국의 쌀 주산지인 차오프라야강 상류

태국산 쌀 수출 가격 추이
(단위: t당 달러) ※정립중, 1급 기준



지역의 강우량은 지난해 8월 이후 평년
대비 약 30%가량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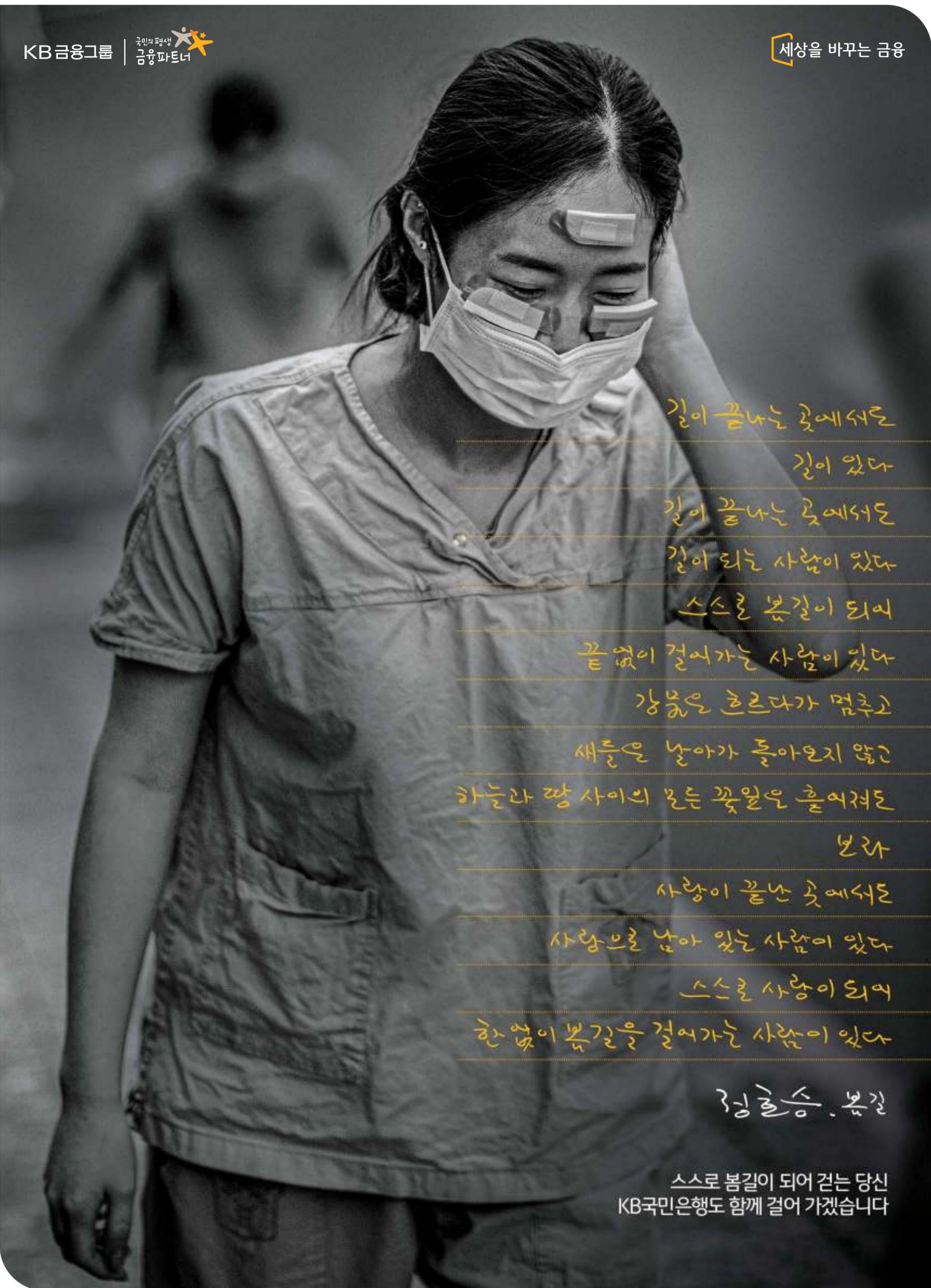
담 건설도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의 쌀 주요 산지는 매콩강 하류
에 있는데, 매콩강 상류인 중국 남부에서
는 11곳의 댐이 가동, 이 영향으로 하류
의 수량이 줄어들며 바닷물이 역류하며 염해
가 일어났다.

태국시업상업은행(SCB) 산하 연구
소 SCB이코노믹인텔리전스센터(EIC)
는 “만일 가뭄이 6월까지 지속된다면
2~7월 태국의 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
비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를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날려도

본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김혜승 . 봄길

스스로 봄길이 되어 걷는 당신
KB국민은행도 함께 걸어 가겠습니다

‘코로나 대출’ 대란 와중에 기업銀 ‘꺾기영업’ 딜레마

교차판매·제한영업·고객 유치 등
경기침체에도 경영평가 지속

직원들 “자영업 등 상황 안 좋으면
지점별 경쟁 부추겨” 불멘소리



IBK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도 현장에서는 이른바 ‘꺾기’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영업점 경영평가가 지속되면서 현장 직원들은 코로나19 대출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상품 영업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인 2월과 3월 기업은행 내부 기업교차판매 건수는 각각 7900건, 5500건으로 총 1만3400건으로 확인됐다. 기업교차판매 영업점에서 한 기업 고객에게 여러 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지점에 방문한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서 기업은행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하고, 방카슈랑스와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하는 영업 방식이다.

기업은행 내부 ‘2020년 영업점 경영평가 지표 및 배점표’를 보면 기업고객관리

리가 나온다. 영업점 직원들 사이에서 경영평가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자 사측은 모든 영업점에 대한 경영평가 공개 시스템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런 방안이 오히려 지점별 경쟁을 부추긴다며, 코로나19 지원에 집중하는 2분기 동안 영업점 경영평가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사는 3일 노사협의회를 열어, ‘영업점 경영평가 잠정 중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해당 안건을 미리 사측에 전달했고, 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경영평가 중단에 대해 양측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직원 대상 경영평가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이사는 “현재 영업점에서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4월이 되면 특별 자금 지급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영평가 일시 중단 요구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다만, 완전 중단할 것인지 일정 부분을 완화할 것인지는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코로나·저금리·비대면거래 확산 ‘조직 다이어트’ 나선 시중銀

국민·신한·우리·하나銀
4월까지 영업점 85곳 통폐합

시중은행 1~4월 영업점 통폐합
(단위: 곳)

은행	1~3월	4월(예정)	합계
국민	38	0	38
신한	4	0	4
하나	24	3	27
우리	14	2	16
합계	80	5	85

시중은행이 코로나19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영업점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서면서 방문고객이 줄어 영업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은 1분기 80곳의 영업점을 통폐합했다. 4월까지 통폐합되는 5곳을 합치면 1~4월까지 모두 85곳의 영업점이 문을 닫는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 닫는 영업점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4대 은행 중 가장 많은 지점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곳은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1월 서울 송파구 잠실역점, 광진구 강변역점, 부산 부산진점 등 38곳을 한꺼번에 통폐합했다.

하나은행도 1~2월 24곳을 정리했다. 하나은행은 서울 강남구 삼성1동점, 양천구 목동14단지점, 서대문구 신촌역점, 경기 성남시 아탑동점 등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영업점을 통폐합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세종로, 종로, 중각역 점 등 3개 점포를 추가로 정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1~2월 신한 PWM강남대교센터, 분당수내동지점, 테헤란로기업금융센터 등 3곳의 문을 닫았다. 지난달에는 종로3가 지점을 정리했다. 우리은행은 1~3월 14곳의 영업점을 정리했다. 이달 서울스퀘어와 안주로지점 2곳을 추가로 닫는다. 시중은행이 영업점 구조조정 슬립

화에 나선 것은 인터넷·모바일 같은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와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오던 손님마저 뜰 났다.

2018년 기준 인터넷뱅킹·텔레뱅킹·ATM 등 비대면 거래 비중은 91.2%를 차지했다. 4대 은행의 모바일뱅킹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76조 원이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9.9%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달했던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건수는 3377만742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59만4833건에 비해 7% 증가한 수치다.

시중은행들은 영업점 구조조정 이후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직 슬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금리와 코로나19가 겹쳐 방문 고객들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보다 전문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점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신한베트남은행 ‘코로나 성금’ 쾌척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 정부에 50억 동(약 2억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체호(왼쪽 세 번째) 신한베트남은행 부법인과 전 탄 만(왼쪽 네 번째)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 박노완(왼쪽 두 번째) 주한베트남대사관 대사가 베트남 하노이 조국전선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기부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내년 7월 통합

신한금융그룹이 내년 7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를 통합하면서 보험부문 강화를 통한 ‘일류 신한’의 핵심사업으로 발돋움한다.

신한금융그룹은 ‘뉴라이프 추진위원회’에서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일을 내년 7월 1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2월 오렌지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한 후 지난 1년간 공동경영위원회를 통해 통합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해 왔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TM채널과 FC채널, 건강보험 및 변액보험 등 판매 채널과 주력 판매 상품에서 각각 업계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양사가 통합하게 되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 통합이 완료되면 신한금융은 당기순이익 기준 업계 3위인 보험사를 보유하게 된다. 더불어 그룹의 핵심 사업자인 인보험 강화라는 비은행 부문 신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게 된다.

김범근 기자 nova@

저축銀 예금금리 1.99%... 사상 첫 1%대 추락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9bp 하락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함에 따라 은행 예대금리가 동반 급락했다. 특히 대출금리는 가계와 기업 모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내려왔다. 반면, 보금자리론 취급분이 줄어든 주택담보대출금리(주담대)는 소폭 올랐다. 하나은행이 행명 변경에 따른 특판적 금에 정기적금 금리는 급등했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월 중 금융기관 기준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2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43%로 전월 대비 11bp(1bp=0.01%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2016년 10월(1.41%)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아울러 작년 8월(-17b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부문별로 보면 순수저축성예금은 10bp 하락한 1.43%를, 시장형금융상품은 11bp 급락한 1.46%를 기록했다. 각각 2017년 7월(1.43%)과 2016년 9월(1.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KEB하나은행이 하나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하면서 5.01%에 4000억 원 규모의 정기적금 특판을 시행한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9bp 하락한 1.99%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저치는 2016년 4월 2.00%였다. 일반대출금리도 55bp 급락한 10.08%를 보였다. 이는 기업대출금리가

6%대, 가계대출금리가 15%대로 형성된 가운데 기업대출 비중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예대금리 하락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시장금리가 급락한 때문이다.

임수영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신과 대출금리도 그 정도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주담대 금리가 올라 가계 대출금리 하락폭은 소폭 그쳤다”며 “3월에는 시장금리가 급변해 지켜봐야겠지만 기준금리가 50bp나 인하됐다는 점에서 수신과 대출금리 모두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

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1억 원 초과 업체는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예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1년 빌릴 수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주택담보대출>

만 55세로 가입문턱 낮춰... 빚 상환 용도 일시수령 가능



코로나 생존 재테크 ① 주택연금

“돈 넣을 데가 없다. 들고 있는 게 버는 거다” ‘코로나19’로 재테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미생들의 한숨이다. 예·적금 금리는 0%대로 떨어졌고, 주식·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익률은 곤두박질쳤다. 노후를 책임져 줄 퇴직연금에는 마이너스(-)가 찍혔고, 큰돈 벌어주던 부동산 투자도 정부 규제에 가로막혔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우리 경제에 얼마나 내상을 입혔는지도 알 수 없다. 돈 버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언노운 리스크(unknown·알지 못하는)’다. 전문가들은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달러와 금이 유망상품으로 꼽힌다. 소득이 없다면 주택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기도에 사는 A(59) 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내(55)가 시간제로 일하는 꽃집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버는 돈은 100만 원 넘게 쪼그라들었는데, 애들 교육비에 보험, 대출까지 나갈 돈은 아직 수두룩하다. 재산이라고는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집을 팔고 거리로 나왔을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오늘(1일)부터 A 씨는 고민을 털어 줄 ‘주택연금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지는 게 골자다.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기준이다. 정부는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역(逆)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이 가입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다르다. 기본 공식은 비싼 집에 살수록 받는 돈도 많아진다.

예를 들어 만 55세 가입자가 시가 5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76만8000원 이 나온다. 7억 원짜리는 107

가입연령 만 60세 → 만 55세

만 55세 기준 ‘5억 주택’ 소유자
월 76만8000원씩 연금 받아
연령·집값 높을수록 수령액 ↑

우대형 주택연금 이용 기준

보유 주택 1억5000만원 미만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지급금 최대 20% 더 받아

가입자 사망 등 계약 종료 정산

남은 돈, 법정 상속인에 반환
주택가격보다 연금 더 받았어도
상속인, 상환 의무는 없어

만 5000원, 9억 원짜리는 138만2000원으로 연금액이 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으로 만 59세에 주택연금이 가입하면 매달 98만2000원을 받

55~59세 가입자의 월지급금 예시

(단위: 원, 일반 주택 기준)

	일반 주택연금(중신지급방식·정액형)				주택대 상환용 주택연금(정액형)			
					5억 원		7억 원	
	3억 원	5억 원	7억 원	9억 원	최대인출한도	월지급금	최대인출한도	월지급금
55세	46만1000	76만8000	107만5000	138만2000	1억3500만	7만7000	1억8900만	10만8000
56세	48만7000	81만1000	113만6000	146만1000	1억4220만	8만2000	1억9908만	11만4000
57세	52만1000	86만8000	121만6000	156만3000	1억5165만	8만8000	2억1231만	12만3000
58세	55만1000	91만9000	128만6000	165만3000	1억5975만	9만3000	2억2365만	13만
59세	58만9000	98만2000	137만5000	176만8000	1억6965만	9만9000	2억3751만	13만9000

* 출처: 주택금융공사



만, 가입시기를 55세로 당기면 월 수령액은 70만 원대로 줄어든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과 비교해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이 가입한 후 집값이 뛰면 어떻게 될까?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등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정산이 이뤄진다.

종료 시점에 주택 가격이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과 보증료를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남은 돈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반대의 경우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집값이 떨어져 연금액을 더 많이 받았어도, 상속인은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주택연금 가입 기간 도중에도 월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중도 해지할 수도 있다.

아직 빚(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씨처럼 시가 5억 원짜리 집을 가진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 원(연금지급 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월 지급금 7만7000원)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코로나 악재로 위협받는 퇴직연금

주식형 펀드 수익률 ‘-34%’... 기준금리 내려 원금 보전 비상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퇴직연금에 편입된 주식관련 펀드 상품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에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상당수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노후 소득과 연계된 연금은 남다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총 112조58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96조3686억 원보다 16.8%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100조4622억원 규모다.

적립액은 늘고 있지만 수익률은 1%대로 부진하거나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의 지난해 확정급여형(DB)의가중평균(원리금보장·원리금비보장) 수익률은 1% 중반대로 분석하고 있다. 원리금 보장 DB형의 수익률은 1.46~1.61%로 은행마다 큰 차이가 없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1.61%, NH농협은행 1.48%, 신한은행 1.46%, 우리은행 1.49%, 하나은행 1.64% 등이다.

원리금비보장 퇴직연금은 주식이나 채권 관련 상품을 편입해 수익을 내는데 펀드 수익률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20일 기준 최근 한 달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33.68%에 달했다.

원리금보장 퇴직연금은 대부분 예금에서 수익을 내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0.75%로 떨어지면서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 인하에 나섰다. 원리금보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은 퇴직연금 조직을 개편하고 수수료를 인하하고 나섰지만 수익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원리금비보장 상품은 주식상품 등이 포함돼 주식시장이 불안정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원리금보장 퇴직연금 상품이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자산은 장기투자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평 기자 pepe@

대한민국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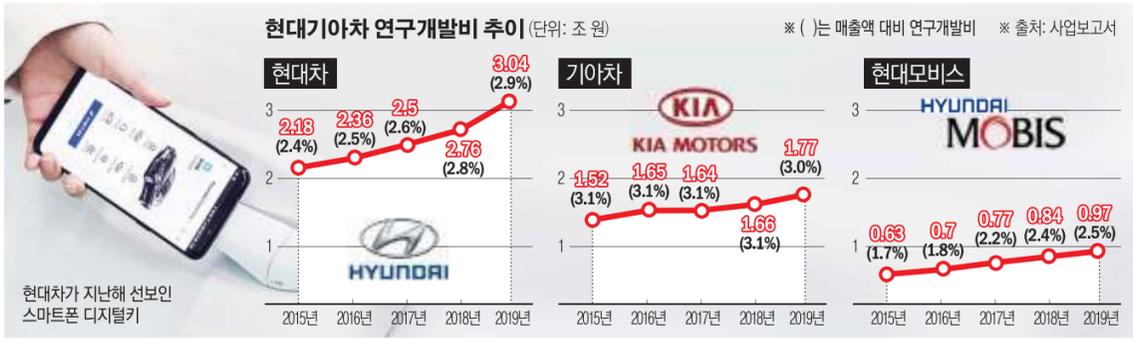
캠코가 국민과 기업의 재기를 돕고 국가자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www.kamco.or.kr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에 현대차 R&D 첫 3조 돌파

지난해, 전년 대비 10% 확대
모비스도 16% 늘어 1조 육박
현대차 61조·기아차 29조 등
5년 이상 ‘대규모 투자’ 계획



현대자동차의 연간 연구개발비(R&D) 투자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도 역대 최대 수준의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미래차 시대에 대비한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연구개발에 3조 389억 원을 투자했다. 전년(2조7564억 원) 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금까지 현대차가 지출한 연간 연구개발비 중 최대치다.

현대차는 매년 6% 안팎씩 꾸준히 연구개발비를 늘려왔는데, 2년 전부터 증가 폭이 10% 이상으로 뛰었다.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해서 증

가해 2015년 2.4% 수준에서 지난해 2.9% 까지 늘었다.

현대차가 밝힌 지난해 연구 성과를 보면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폰 NFC 출입·시동 앱’ 등 첨단 안전, 편의 사양과 관련한 실적이 다수였다. 지난해 7월 출시된 8세대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세계 최초로 갖춘 ‘능동변속 제어’, ‘살라루프 시스템’ 등 차세대 친환경차 관련 기술도 있었다.

기아차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49억 원을 지난해 연구개발에 투입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로 수년째 비슷했지만,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6% 늘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연구개발비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현대모비스였다. 지난해 현대모비스는 2018년 대비 15.6% 늘어난 9658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2015년부터 10% 내외씩 증가하던 연구개발 증가세를 고려하면 현대모비스의 연구개발비는 올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친환경차, 모빌리티 등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당분간 3사의 연구개발비 지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3사는 5년 이상의 중장기 미래 전략과 함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6년 동안 미래차 기술에 61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능형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선보였다.

기아차도 올해 초 중장기 미래전략인 ‘플랜S’를 공개하며 2025년까지 총 2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회사를 선제적인 전기차 사업 체제로 바꾸고,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2021년까지 부품 매출의 10%가량을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이 중 절반을 자율주행 센서, 지능형 음성인식, 생체인식 등 ICT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쌍용차, 커넥티드카 시스템 서비스 쌍용자동차가 이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커넥티드카 시스템의 이름을 ‘인포콘(Infoconn)’으로 정했다. 인포콘은 쌍용차가 LG유플러스, 네이버와 함께 개발한 시스템으로 코란도와 티볼리에 우선 적용된다. 인포콘은 사고로 에어백 작동 시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갖췄다. 또한 차 내부 시스템과 홈 IoT 기기를 제어할 수 있고, 네이버의 AI 플랫폼 클로바를 접목해 음성 명령도 가능하다. 전문 음악 플랫폼을 활용한 스트리밍과 네이버가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강점이다. 사진제공 쌍용차

벼랑끝에서 풀린 진에어 제재

노선 확대·새 항공기 도입
19개월 만에 가능해져
부정기편 운항도 재개

2018년 8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취한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1년 7개월 동안 묶여 있던 신규 운수권 배분 대상에도 포함된다. 진에어는 지난해 2월 인천-울란바토르(몽골) 운수권은 물론 같은해 3월 15일 한중 항공회담에 따른 중국 운수권(주 70회 증대) 배분 등에서 배제됐었다.

여기에 국토부가 매년 2월 즈음 진행하는 운수권 재배분 작업에도 진에어가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반납된 노선, 추가 배분해야 할 노선 등을 감안해 국적사들을 대상으로 노선을 재배분한다.

다만, 진에어는 1년 7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의 제재와 울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2018년 8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취한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1년 7개월 동안 묶여 있던 신규 운수권 배분 대상에도 포함된다. 진에어는 지난해 2월 인천-울란바토르(몽골) 운수권은 물론 같은해 3월 15일 한중 항공회담에 따른 중국 운수권(주 70회 증대) 배분 등에서 배제됐었다.

여기에 국토부가 매년 2월 즈음 진행하는 운수권 재배분 작업에도 진에어가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반납된 노선, 추가 배분해야 할 노선 등을 감안해 국적사들을 대상으로 노선을 재배분한다.

다만, 진에어는 1년 7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의 제재와 울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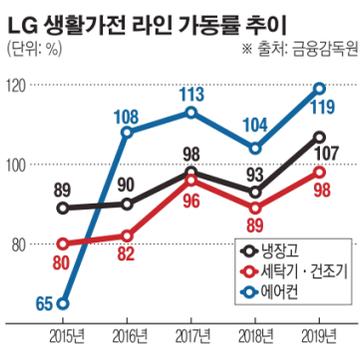
LG 생활가전 가동률 지난해 100% 넘었다

매출·영업익·이익률 역대 최고

지난해 LG전자 생활가전 생산라인 가동률이 100%를 돌파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이 큰 인기를 끌며 공장이 쉴 틈없이 가동된 것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LG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냉장고, 에어컨 생산라인 가동률은 각각 106.9%, 118.9%로 집계됐다. 전년(냉장고 93.1%·에어컨 104%)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상승세다. 세탁기·건조기 생산라인 가동률(97.9%) 또한 100%에 근접했다.

가동률은 실제 생산수량을 생산능력 수량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값이다. 가동률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추가 근무로 인해 제품이 생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액 20조 원을 넘었다. 영업이익(1조 9962억 원)과 영업이익률(9.3%)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LG 생활가전 생산라인 가동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작년보다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북미, 유럽 가전 매장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LG 가전제품 판매량에도 타격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가동 중단된 LG 가전 공장도 많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LG 가전 공장인 루자 사업장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가동을 중단한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LG 세탁기 공장도 인도네시아의 가전 생산 공장 또한 4월 중순까지 문을 닫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S전선, 친환경 PP케이블 상용화

재활용 가능...세계 2번째 개발

LS전선은 최근 한전과 함께 배전용 친환경 케이블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상용화에 적극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케이블의 도체를 감싸는 절연 재료에 가교폴리에틸렌(XLPE) 대신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이하 PP)을 사용,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XLPE는 1960년대부터 50여 년간 케이블의 절연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제조 과정에서 메탄 가스가 발생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PP 케이블은 이런 단점을 보완, 의자와 생수통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인 PP를 사용, 메탄 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이

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인 케이블이다. 또 케이블을 폐기하더라도 절연재로 사용된 PP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PP는 열에 강해 XLPE 케이블보다 전력을 10% 이상 많이 보낼 수 있어, 도심지, 변화가 등 전력 과부하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LS전선은 한전과 공동으로 약 60억 원을 투자, 2015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PP 케이블을 개발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3개 지역에 시범 운영을 마쳤다. 회사 측은 최근 한전이 각 지역본부에서 친환경 PP케이블을 적극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만큼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해고폭풍’ 몰려온다

▶1면서 계속

문제는 올해다.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 중심의 정부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들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당분간 기업들은 보다 강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질의 일자리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 세계 하늘길이 막혀 파산 위기까지 내몰린 항공업계는 고사직전이다. 전 노선이 섰다운된 이스타항공은 수습 부사장 80여 명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구조조정과 무관했던 운항승무원까지 감축했

며 기내 청소 등을 지원하는 항공사들의 하청업체 직원 중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1838만8000명으로 1월보다 14만3000명(0.8%) 줄었다고 밝혔다.



당신의 따듯한 마음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병원문을 닫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의사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대한민국의 간호사

10kg이 넘는 장비를 이고 땀을 쏟는
대한민국의 방역진

밤잠을 줄여가며 위기 극복에 매진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힘을 냅시다!



삼성물산, 태양광 사업 美 전역으로 확대

삼성솔라에너지 세 번째 자회사 세워 동부·중부 담당 “북미 중심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꾸준히 늘릴 계획”

삼성물산이 최근 미국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서부와 남부 중심이었던 사업을 동부와 중부 등 미국 전역으로 넓히고 있다.

3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특수목적법인(SPC)인 ‘삼성 솔라 에너지(Samsung Solar Energy) 3 LLC’를 설립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물산의 미국 SPC ‘삼성 솔라 에너지’의 세 번째 자회사다. 이번 자회사는 미국 동부와 중부 지방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미국 전역으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세 번째 SPC를

설립했다”며 “현재 부지를 알아보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등 초기 단계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이 이 SPC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7년부터다. 당시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미국법인 ‘Samsung C&T America’는 약 90억 원을 투자해 삼성 솔라 에너지를 설립했다.

삼성 솔라 에너지는 26억 원을 투자해 100% 자회사인 삼성 솔라 에너지 1을 만들고 미국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61억 원을 추가 투자해 두 번째 법인을 설립, 미국 서부와 남부 중심의 태양광 사업을 진행해왔다.



삼성물산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기존 서부, 남부에서 최근 동부, 중부까지 넓히는 등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앞 두 법인들은 캘리포니아 주 등 서부와 남부 중심이었다”며 “이번에 설립한 법인은 동부와 중부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솔라 에너지 1·2도 서부와 남부지

역을 중심으로 안전을 발굴하고 거래처를 확대하면서 사업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 솔라 에너지 1은 47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솔라 에너지 2의 경우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25억 원의 손실을

을 보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캐나다 온타리오 풍력·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 PEI주 서머사이드 신재생 복합발전 시설 준공 등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 시장인 북미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종합상사들이 공들이고 있는 ‘신성장 동력 발굴’의 일환이다.

삼성물산이 북미 태양광 발전 시장에 첫발을 디딘 것은 2010년이다. 현지 전기 공급회사인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과 함께 툴레어 카운티, 킹스 카운티 등에 50메가와트(MW) 규모 발전소 1개와 20MW 규모 발전소 4개를 건설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현대차, 싱가포르에 모빌리티 혁신센터 건립

신차 개발판매 ‘전초기지’ 활용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 ‘현대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센터(Hyundai Mobility Global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를 건립하고 미래차 실증 사업에 나선다. 글로벌 저성장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기 등에도 미래차 전략은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31일 현대차는 센터 추진과 관련해 “연구 개발(R&D)과 비즈니스, 제조 등 미래 모빌리티 전반을 혁신할 새로운 사업과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신개념 ‘오픈 이노베이션 랩(Lab)’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가는 혁신 센터는 싱가포르 서부 주룽(Jurong) 산업단지에 자리한다. 4만4000㎡(약 1만3000 평), 건축면적 2만8000㎡(약 8500평) 규모로 2022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현대차는 이곳 싱가포르 센터를 세계 최고의 개방형 혁신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대 모빌리티 혁신 센터는 다각도의 개방형 혁신 허브(Hub)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을 실증한다. 싱가포르의 혁신 생태계와 현대차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담당하는 조직을 결합해 ‘다중 모빌리티(Multi-Modal)’ 등 신비즈니스 관련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나아가 △신차 개발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과감한 혁신 기술 연구로 신시장과 신고객을 창출하는 전초기지 역할도 수행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사람 중심의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소규모 전기차 시범생산 체계에서 검증한다. 지능형 제조 플랫폼과 연계한 차량개발 기술과 고객 주문형 생산 시스템도 연구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에쓰오일, 휘어지는 배터리 개발 벤처에 투자

CES혁신상 ‘리베스트’ 지분 매입 “사업 진출은 아냐”...신사업 관심

에쓰오일(S-OIL)이 휘어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인 ‘플렉시블(flexible) 배터리’(사진)를 개발한 벤처기업 ‘리베스트’에 투자를 단행했다. 사업 연관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투자로, 석유산업의 큰 변화 이후의 에쓰오일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31일 에쓰오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리베스트에 10억 원(지분율 6%)을 투자했다.

리베스트가 개발한 플렉시블 배터리는 말 그대로 휘어지는 배터리로, 원통형, 파우치형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유연성을 갖췄다.

그동안 시장에 등장했던 플렉시블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에 비해 충전량이나 전압



이 떨어지고 한 번 휘어지면 모양을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리베스트는 성능 구현과 모양 복원에 성공하며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시회 CES 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최근 접거나 휘어지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전자제품이 출시됐으나, 여전히 배터리로 인해 설계나 디자인 면에서 제약이 많은 상황이어서 플렉시블 배터리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에쓰오일은 이번 투자에 대해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며 “다만, 사업을 직접 진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이번 투자로 에쓰오일이 급변하는 석유 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배터리 분야도 관심있게 살펴 보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에쓰오일은 리베스트 외에도 신사업 발굴 차원에서 다양한 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스마트기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인 폴리이미드(PI) 필름과 용액을 국산화한 ‘아이피아이 테크’에도 10억 원을 투자했다. 아이피아이 테크의 PI필름은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 롤러블(rollable) TV 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핵심소재다. 또한, 인공지능(AI) 솔루션 벤처인 ‘원프레딕트’에도 10억 원을 투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Time is our tradition.



BELLEVILLE
1766.1535

‘시간은 우리의 전통’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정부 지원금 받게 해줄테니 돈 달라” 예비 창업자 울린 ‘가짜 센터장’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민간 운영 기관 직원이 “청년창업사관학교 10기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예비 창업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와 중진공의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 전 단계

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 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을 받는다. 2019년 9기까지 청창사로 청년 창업가 3815명이 배출됐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안산,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충남 등 5개 직영을 제외한 서울, 경기 북부, 인천, 강원, 전북, 전남 등 12개 지역에서는 민간운영사가 운영을 맡는다. 지난해까지는 1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했으며, 올해부터는 2년 단위로 용역 계약 체계로 변경되고 있다. 중진공은 올해 1월 10개 입교생을 모집하면서, 12곳의 민간운영사도 모집 공고를 냈다.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10기로 지원한 예비 창업자 4명은 “합격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에게 서류 합격을 위한 선수금 100만 원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최종 합격 시에는 최대 1억 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을 50%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이들이 브로커를 믿은 이유는 브로커가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

자체적으로 다. 중진공은 이 같은 민간운영사를 지난해까지 1년 단위로 용역 계약했다. 올해부터는 2년간 용역 체계로 바뀌었고, 올해 초 선정이 완료됐다.

피해자 4명을 대표하는 B씨는 정부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사이트 ‘국민신문고’에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올렸고, 24일 접수가 완료됐다. 국민신문고 법정 처리

기간은 7일로, 1일 답변이 예정돼 있다. 중진공 감사실은 센터장 행세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씨가 중진공 본사 직원이 아닌 민간 운영사 직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진공 감사실 관계자는 “1일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에 협조는 할 수 있지만, 감사실은 수사 기관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피해 접수 6일이 지난달 30일 신고자 대면 조사와 엘스톤의 직원을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중진공 감사실 관계자는 “향후에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운영사 ‘엘스톤’ 계약직 직원이 있지도 않은 센터장 행세하며 4명에게 100만원씩 받아챙겨 중진공 감사실 “권한 없다” 뒷짐… 취재 사실 알고 ‘뒷북 조사’

명함, 이전 청창사 입교생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 신고인에 따르면 피해자 4명 중 3명은 서류에서 탈락했고, 1명은 최종 합격했다.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스타트업 전문 투자기업 엘스톤이 민간운영을 맡고 있다. 중진공 감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전남 청창사 센터장이라고 믿은 A씨는 엘스톤의 계약직 직원으로 드러났다. 5개 직영 청창사에는 센터장이라는 직함이 없다. 다만, 12개 민간 운영사의 대표이사는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손흥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

SK브로드밴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에서 손흥민 선수가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SK브로드밴드

“코로나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 서로 격려해요”

과학기술계, 정신건강 권고안 마련

“10가지 권고안 실천으로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과학기술계가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정신건강 대책 권고안’을 31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의 신호는 불안 및 공포, 감염병 관련 정보 검색 집착, 의심 및 경계, 외부 활동 감소,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계가 이날 발표한 권고안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다.

권고안은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을 인지하기 △정확한 정보 적절히 얻기 △불확실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 알기 △규칙적 생활하기 △취미활동 하기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 지속하기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 유지하기 △아프고 취약한 주변인에 관심 갖기 △서로에게 응원하고 격려 보내기 등이다. 이재훈 기자 yes@

중기부 산하 기관장 급여 30% 반납 “고통 분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를 30%씩 반납하기로 했다.

31일 중기부와 각 기관에 따르면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정운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조정권 중진공 이사장 직무대행은 4월부터 4개월 간 급여 30%를, 이들 기관의 임원은 급여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이들이 반납한 급여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을 위해 쓸 예정이다.

이들 기관의 임직원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활동도 이어왔다. 지난 25일에는 소진공 직원들이 1200만 원 상당의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기보 임직원들도 4월 노사공동으로 긴급 후원금 400만 원을 기부했고, 11일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1000만 원과 현물 300매를 기부했다. 23일에도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조이스티 ‘블레스 모바일’



그라비티 ‘라그나로크:택틱스’

중소형 게임사, 2분기 신작 출시 러시

국내 중소형 게임사들이 2분기 신작 출시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게임사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화상회의 등 협업관계를 통해 신작 출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조이스티와 그라비티, 데브시스터즈 등이 2분기 신작을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선다.

우선 조이스티는 이날 2분기를 겨냥한 신작 ‘블레스 모바일’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게임은 조이스티의 자회사 싱크편이 개발한 모바일 MMORPG 장르의 신작으로 출시 전 사전 예약자 20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특히 언리얼 엔진4 기반의 화려한 록앤필 외에도 자동과 수동 플레이에 대한 최적의 밸런스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지난 20일 진행된 CBT에서는 게임성과 안정성 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CBT 참여 대상자들이 보내준 의견을 빠르게 수렴, 반영하는 등 유저와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라비티 역시 전략 시뮬레이션 RPG ‘라그나로크:택틱스’를 선보였다. 특히 게임의 흥행을 위해 TVN, OCN, Olive 등

조이스티 ‘블레스 모바일’

언리얼 엔진4 기반 화려한 록앤필 사전 예약자 200만 명 흥행 예상

그라비티 ‘라그나로크:택틱스’

100여 종 캐릭터·몬스터 등장 라그나로크 첫 SRPG 큰 기대

데브시스터즈 ‘스타일릿’

3D 스타일링 게임... 女心 조준 완성도 높이기 위해 출시일 늦춰

여러 TV 채널에서 광고를 진행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게임은 유저들이 직접 100여 종의 라그나로크 캐릭터와 몬스터를 활용해 전략을 짜고 전투를 진행할 수 있다. 친숙한 ‘라그나로크’ 몬스터들을 게이머들이 획득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말 이 게임은 태국에서 출시해 출시 당일에 애플 앱스토어 무료 다운로드 인기 순위 1위, 앱스토어 매출 2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4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둬 국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작품이다.

데브시스터즈는 오는 4월 16일 3D 스타일링 게임 ‘스타일릿’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 당초 3월 중 서비스를 계획했지만 보다 탄탄한 완성도를 갖춘 게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일을 조정했다. 이 게임은 지난 2월부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해당 테스트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 게임업체들이 빅3 신작 출시 공백 기간에 맞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게임업체의 신작 출시가 없는 시장에 게임을 출시해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게임업계 부익부빈익빈 현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침체기 상황에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조성준 기자 tiatio@

“첨단 ICT 기술 활용 ‘n번방’ 원천 차단”

과기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추진

“텔레그램 n번방을 원천 차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R&D)·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의 활용·도입,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

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정책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yes@

“사라진 봄축제 아쉬움 달래세요”... 유통가 ‘벚꽃 마케팅’

이자녹스 ‘벚꽃 컬렉션’·에뛰드 ‘하트 블라썸’ 한정판 출시
CU ‘GET 루비...’·이마트24 ‘블라썸세트’ 등 먹거리 다양

코로나19 여파로 봄나들이의 상징 ‘벚꽃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지만 유통업체의 벚꽃 마케팅은 한창이다.

낮기는 20도 안팎의 봄 날씨로 거리 곳곳엔 벌써 벚꽃이 핀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상춘객이 몰리는 지역은 일찌감치 벚꽃축제 취소를 예고했다. 매년 400만 명 관광객이 몰리는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취소된 데 이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축제도 올봄 구경하기 어렵게 됐다.

벚꽃축제는 내년을 기약해야 하지만 유통업체는 상춘객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벚꽃을 상품에 녹인 벚꽃 마케팅을 쏟아내고 있다.

화장품업계는 벚꽃 이미지를 화사하게 표현한 한정판 화장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LG생활건강은 ‘이자녹스, 벚꽃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화사한 봄바람에 흠뻑 젖는 벚꽃을 디자인에 적용한 ‘이자녹스 벚꽃 컬렉션 시즌 5’를 출시했다. 커버쿠션, 크림, 세럼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에이지 포커스 피토 프로테티놀 엑스트라 커버쿠션’은 핑크색 용기에 입체적으로 조각된 벚꽃을 얹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에이지 포커스 프라임 더블 이펙트 아이 포울 크림’은 벚꽃 컬렉션 한정판으로 히알루론산 파우더에 핑크빛 파우더 앰플을 추가해 풍성함을 더했다. ‘에이지 포커스 피토 프로테티놀 링클 세럼’은 환절기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준다.

에뛰드도 메이크업 제품부터 베이스, 선젤, 퍼프포 구성된 벚꽃 컬렉션 ‘하트 블라썸’을 한정 출시했다. ‘플레이 컬러 아이즈 하트 블라썸’은 6컬러 아이섀도 팔레트로, 벚꽃 잎을 압착한 듯 화사한 핑이 특징이고, ‘베러 립스-톡’, ‘블라썸 치크’, ‘래쉬뽀 볼륨 픽스 마스크라’ 등 메이크업 제품은 벚꽃 데일리 룩을 연출하기 좋다.

바닐라코는 제주 왕벚나무꽃추출물을 담아 화사한 피부 연출을 돕는 ‘프라임 프라이어 벚꽃 톤업’을 출시했다.

식음료 업계에서도 벚꽃 한정판 먹거리를 선보였다. CU는 벚꽃에서 모티브를 얻



LG생활건강 '이자녹스 벚꽃 컬렉션'



CU 'GET 루비초콜릿 라떼'

은 봄 시즌 한정 상품 GET 루비 초콜릿 라떼를 출시했다. 루비 초콜릿은 카카오빈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낸 붉은색과 독특한 산미 덕분에 식품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다크, 밀크, 화이트 초콜릿의 뒤를 이은 4세대 초콜릿으로 떠올랐다. GET 루비 초콜릿 라떼는 루비 초콜릿 특유의 상큼한 맛과 초콜릿의 달콤함, 라떼의 부드러움을 조화롭게 느낄 수 있다. 아울러 CU는 GET 커피 전용 테이크아웃컵의 디자인을 벚꽃으로 바꿔 봄맞이 리뉴얼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CU는 벚꽃 추출 파우더와 딸기 파우더, 딸기 다이스를 넣은 핑크빛 라떼인 ‘벚꽃 라떼’를 3만 개 한정으로 선보

이고, 화과자 안에 벚꽃향 앙금을 채운 ‘별써 벚꽃’, 분홍색 튀김 후레이크를 입힌 핫도그 ‘벚꽃색 핫잘도그’ 등 다양한 봄 시즌 한정 상품을 내놨다.

이마트24도 벚꽃 시럽을 넣은 유부초밥 3개와 단단 샌드위치의 대명사인 대만식 샌드위치 2개 등으로 구성된 블라썸세트를 4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패키지에 벚꽃 라벨을 붙여 봄 분위기를 살렸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도 체리블라썸 음료를 선보였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체리블라썸 루비 라떼’, ‘체리블라썸 루비 초콜릿’, ‘루비 석류젤리 크림 프라푸치노’ 등 3종을 내

다. 3종 모두 루비 초콜릿이 들어간 체리블라썸 시럽을 활용해 벚꽃 가득한 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스타벅스는 이마트가 만든 색조 화장품 브랜드 ‘스톤브릭’과 손잡고 체리블라썸 프로모션 음료 3종 중 2잔 이상 구매 시 스톤브릭 ‘체리블라썸 세트’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커피빈코리아는 2016년부터 꾸준히 선보이는 봄 시즌 대표 메뉴인 벚꽃 음료 ‘체리블라썸’ 3종을 출시했다. 올해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코코넛 젤리 등 신선한 재료에 체리향을 더해 새롭게 돌아왔다.

박미선 기자 only@

롯데면, 업계 최초 ‘스마트 스토어’

‘비대면 소비심리’ 확산 대응

롯데면세점이 업계 최초로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며 비대면 소비에 대응한다.

롯데면세점은 약 520㎡(157평) 규모의 뷰티 전문 매장인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 스토어는 화장품, 향수, 뷰티 디바이스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고객 체험을 강화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대기 없이 빠르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구현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한 달간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1층에 있는 ‘스타에비뉴 코너’를 재단장해 스마트 스토어로 탈바꿈시켰다.

디지털 쇼핑 서비스 외에도 차별화된 쇼핑 경험 또한 제공한다. 스위스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라프래리의 제품으로 피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파 서비스 룸과



프리미얼 케빈이 들어섰고, 롯데면세점 모델로 활동하는 뷰티 인플루언서 ‘포니’가 해외 인기 브랜드를 찾아 직접 큐레이팅한 상품을 판매하는 ‘비티(Bitti)’도 업계 최초로 입점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명동본점의 스마트 스토어 오픈을 시작으로 국내외 다른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선 기자 only@

쿠팡 ‘쿠페이’ 오늘 분사... “핀테크 전문성 강화”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간편결제 ↑ ... 금융 서비스업 진출 전망도

쿠팡이 PG(전자결제대행)사업인 ‘쿠팡페이’를 별도 회사로 분할해 본격적으로 핀테크 사업에 나선다.

쿠팡은 1일 자사 내 핀테크 사업부를 분사해 독립 법인으로 분사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쿠팡은 온라인 쇼핑물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쿠팡 페이는 핀테크 및 결제 사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핀테크 사업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더 많은 고객들에게 100배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핀테크 서비스인 쿠페이는 사용자 등록 인원이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거래액 규모로 이미 국내 3위에 이르는 대표

적인 간편결제 서비스다.

신설 법인 대표는 핀테크 사업부 기술총괄을 맡고 있는 경인태 시니어 디렉터가 맡게 된다. 경인태 신임 대표는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핀테크 부문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추세에 이커머스 시장의 급팽창에 힘입어 예상보다 빨리 사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유통업 매출 동향에서도 쿠팡을 필두로한 온라인 유통 매출 비중이 49%를 차지해 오프라인 유통 매출을 턱말까지 추격하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올 1분기 사상 첫 거래액 5조원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51%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당지가 커지면서 카카오페이처럼 금융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4월 자사 내에 있던 핀테크사업 부문을 떼어내 카카오페이를 설립했다. 네이버페이(현 네이버파이낸셜)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다.

이후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까지 인수해 펀드 판매까지 나서며 생활금융 플랫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관계자는 “법인을 세우면 사용자 확대에 유리한 점이 많고, 금융 서비스 등도 꺾힐 수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이케아 만난 현대백... ‘도심형 매장’ 첫선

천호점에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현대백화점이 ‘리빙 콘텐츠’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의 ‘초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백화점 업계 최초로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스웨덴 홈퍼니싱 브랜드 ‘이케아’의 도심형 매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30일 천호점 9층 리빙관에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천호(IKEA Planning Studio Cheonho)’를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장 규모는 일반 리빙 브랜드 매장보다 10배 이상 큰 506㎡(약 153평)다.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는 이케아가 운영하는 소규모 도심형 매장으로, 홈퍼니싱의 전문지식과 서비스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침실·거실·주방 등 공간에 대한 컨설팅(플래닝 서비스)을 받을 수 있다.

천호점에 문을 여는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천호’는 베드룸, 키즈룸 등 총 5개의 룸셋(쇼룸)으로 꾸며진다. 전문 홈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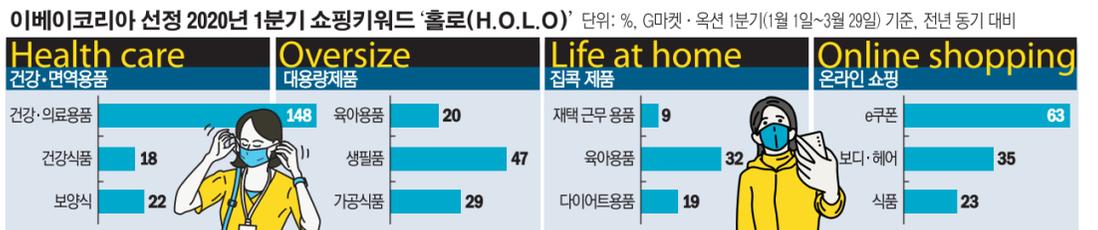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뉴욕

니싱 컨설턴트가 상주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상담 받을 수 있고, 상품 주문까지 가능하다.

현대백화점은 그동안 리빙 분야에서 차별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백화점 업계 최초로 선보인 ‘삼성 프리미엄 스토어’가 대표적이다.

현대백화점의 리빙 상품군은 2017년 11.9%, 2018년 18.3%, 2019년 13.8%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1분기 쇼핑 트렌드는 율로 말고 ‘홀로’

(H.O.L.O)

코로나19 영향 ‘건강·대용량·집콕·온라인 쇼핑’ 대세

국내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올해 1분기 쇼핑 키워드로 ‘홀로(H.O.L.O)’를 선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상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쇼핑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31일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의 1분기 판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면역용품(Health Care) △대용량 제품(Overdose) △집콕 제품(Life at home) △온라인쇼핑(Online Shopping) 등 홀로(H.O.L.O) 트렌드의 4

가지 구체적 특성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위생용품을 비롯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건강 관련 용품 판매가 급증했다. 해당 기간 건강·의료용품 전체 판매량은 148%가 급증한 가운데, 세부 품목으로 마스크 등이 포함된 호흡·수면건강용품은 3배(222%), 건강측정용품은 2배(113%) 판매 신장했다.

외출이 어려워지자 대용량 제품 수요도 증가했다. 즉석밥, 통조림 등이 포함된 대용량 가공식품의 판매량은 29% 늘었다. 대용량 생필품은 47% 증가한 기

준데 대용량 세제(48%), 화장지·물티슈(61%) 등이 일제히 신장세를 보였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소비패턴 변화에 영향을 줬다. 재택근무와 홈스터디 증가로 관련 디지털가전 수요가 증가했다. 노트북과 모니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와 12% 증가했고, PC카메라(53%)도 오묘세를 기록했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블록(38%) 등이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쇼핑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의류, 식품, 생필품 등 판매량이 31% 증가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대한민국은 이길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텅 비어버린 거리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수많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내는 자가격리자와 환자분들

그 동안의 모든 고난도 결국 이겨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모델
휠체어펜싱 김선미 선수

“해외펀드 차별... 등록 절차·과세 개선 시급”

펀드를 말한다 10 정은수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대표

해외 상품 국내 판매 절차 최소 3~4개월 걸려 공급 제동
챗봇 같은 부가 서비스 통해 펀드 정보 접근성도 높여야

“비효율적인 절차와 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곧 균형잡힌 자산배분과 펀드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은수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대표는 3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주식 펀드에 비해 해외펀드들이 차별 당하고 있는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손실펀드와 이익펀드를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발생한 실질 손익 기준으로 상계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펀드의 국내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지금보다 신속하게 적시에 고객이 원하는 해외 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당장 매력적인 상품을 해외에서 발굴하더라도 국내 등록을 통한 판매절차에 최소 3~4개월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챗봇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통해 펀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운용사는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고 능동적인 고객 피드백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한 시장 정보와 과



거 수익률에 의존한 펀드 판매보다 고객의 성향과 투자목표에 맞춘 포트폴리오 식 판매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 상황에 맞는 투자전략으로는 “지금 같이 무차별적인 매도로 나타난 조정 상황에서는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 집중하고, 현금비중 조정과 과매도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액티브 펀드가 유리하다”며 “맹목적인 물어두기식 투자보다는 시나리오별 투자계획을 세운 후 자금을 분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그는 “올해에는 타사대비 강점을 가지고 있는 ESG, 멀티에셋, 해외투자펀드의 저변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대체투자상품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중기적으로는 통합적인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슈로더투신탁운용은 2001년 설립 이후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멀티에셋 인컴 펀드 등 다양한 전통자산군을 중심으로 상

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내 다양한 기관투자자의 수요에 맞춘 PEF, VC, 인프라채권, 부동산 펀드와 같은 대체자산군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테일 펀드에서 글로벌 주식 및 채권 펀드 라인업을 보강하고, 대체자산 가운데 부분개방형(Semi-liquid)으로 거래가 가능한 PEF 상품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형태로 출시하기 위해 국내 등록을 진행 중이다.

향후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치료제 개발 등 원천적으로 바이러스 확산 공포가 진정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이라며 “코로나가 유가 전쟁, 경기침체, 에너지와 항공업체 부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당분간 발표되는 경기 지표 및 전망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동학개미운동’ 이번엔 성공 가능성 높은 이유

저금리 장기화·부동산 규제에
갈 곳 잃은 개인 자금 증시로 몰려
31일 코스피 거래 13兆 역대 최고
투자자예탁금도 최근 45兆 넘어

개미 군단이 증시로 모여들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와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더해지면서 시중자금이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3조6451억 원, 13조5203억 원이 거래되며 거래대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는 최근 2개월 간 16조871억 원을 사들이며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들의 매수 공세에 힘입어 1400선까지 추락한 코스피는 이날 175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782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하락 종목은 123개에 불과했다. 지난 19일 896개 종목이 하락 마감한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수적이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가파르게 떨어진 금리, 부동산 규제로 갈 곳을 잃은 개인들의 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며 “언제든 시장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 막대한 규모의 개인자금이 대기하고 있어 시중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 매수 여력을 측정할 수 있는 투자자예탁금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투자자예탁금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돈으로 향후 증시에 유입될 가능

성이 있는 대기 자금이다. 연초 27조 원에 불과했지만 최근 45조 원을 넘어서며 급증했다. 해당 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추가 상승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개인은 이날 하루간 삼성전자(1478억 원), 삼성SDI(536억 원), SK하이닉스(429억 원), 삼성전자우(331억 원), 부광약품(165억 원), 아모레퍼시픽(146억 원)등을 순매수 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 19 파장이 글로벌 매크로를 붕괴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최종 승자는 외국인인 아닌 개인이 될 전망”이라며 “그 동안 개인들이 외면했던 코스피 대형주와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유진투자증권, 자산관리 ‘챔피언스 라운지’ 오픈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를 오픈했다.

31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유진투자증권은 논현동 ‘챔피언스 라운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유지장 회장, 유창수 부회장 등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금융부문 주요 임직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센터 참관 및 테이프 커팅 등 최소한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챔피언스 라운지는 유진투자증권의 자산관리역량이 결집된 WM특화 금융센터다. 건물면적 약 461㎡ 규모의 빌딩에 1층부터 4층에 걸쳐 조성됐으며 50여명의 자산관리 전문가 및 PB가 상주한다.

1층은 문화 프로그램, 투자설명회 등 고객 행사를 위한 멀티라운지로, 2층에는 고객 상담실과 세미나실이, 3층과 4층에는



PB들의 업무공간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챔피언스 라운지를 통해 차세대 고객관리 시스템과 영업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리서치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및 전용 세미나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이밖에도 세무, 부동산 등 전문분야 상담서비스와 함께 1층 멀티라운지를 활용한 투자이카데미, 문화 행사, 고객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고객에게 제공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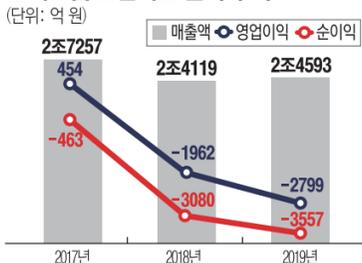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여말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철도 사업 대규모 적자 '한계기업 전략'

상장사 재무 분석

현대로템

현대로템 연결기준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현대로템이 본업인 철도 부문 부진으로 한계기업 상황에 처했다. 올해 흑자전환이 예상되지만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생력은 내년이나 갖춰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해 연결기준 279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2년 연속 적자가 지속했다. 매출은 2조4593억 원으로 전년보다 2.0% 늘었고 순손실은 3557억 원으로 2년째 30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현대로템은 2017년 45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그해 이자 비용 501억 원에 미달해 이자보상배율은 0.9배에 그쳤다. 2018년과 작년에는 영업손실을 내 3년 연속 이자 상환이 불가능한 처지가 됐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거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이 됐다.

현대로템의 사업 약화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철도 부문 부진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현대로템 매출의 53%는 철도에서 발생했고 22%는 방산, 17%는 플랜트에서 나왔다. 작년 철도 부문 영업손실은 2595억 원으로 전년보다 다섯 배 가량 적자 폭이 커졌다. 과거 저가로 수주한 국내 전동차와 해외 일부 프로젝트의 손실로 어닝쇼크가 발생했다. 반면 과거

작년 철도 부문 2595억 적자에 2년 연속 3000억 순손실 발생 자본총계 줄며 부채비율 362%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실적 안전판 역할을 했던 방산은 최근 2년간 수익 규모가 100억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손실을 상쇄하는 효과가 약화했다.

또 최근 3년간 7100억 원의 누적 순손실로 자본총계가 줄어든 반면 부채총계는 대체로 증가해 부채비율도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362.6%로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01.4%포인트 오른 수치다. 여기에 부채의 성격이 중전보다 악성화됐다. 최근 10년 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격차는 수천억 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조3800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더 많아졌다. 유동부채가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뜻하는 만큼 채무 상황에 대한 압박이 이전보다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조남호 기자 spdran@

흑자전환·유동성 회복... 살아난 동성화인텍

코스닥 상장사 동성화인텍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유동성 또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성화인텍의 지난해 유동비율은 135.74%로 전년 대비 64%포인트 증가했다. 2003년(179.6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2015년 131.8%를 기록했던 유동성은 이후 해마다 줄었고 급기야 2018년엔 71.8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적 반등 속에 현금 확보도 이뤄지면서 유동성이 나아졌다.

동성화인텍은 지난해 10월 시설 및 운영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에 앞서 단기차입금을 늘리기도 했다.

현금유입이 전보다 늘어 지난해 현금및 현금성자산은 57.61% 증가한 231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실적 증가 속에 재고자산도 73.47% 늘어났고, 이에 2018년 800억 원 규모이던 유동자산이 지난해엔 1400억

동성화인텍 재무손익 현황

(단위: 억 원,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2017년	2018년	2019년
영업이익	-252	-85	269
당기순이익	-322	-100	169
유동비율	112.83	71.81	135.74

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유동부채의 감소도 유동성 개선에 한몫했다. 동성화인텍은 지난해 단기차입금이 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52% 늘었지만, 그 대신 500억 원이 넘는 유동성장기 차입금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10분의 1 수준(53억 원)으로 급감했다. 유동부채가 나간 자리는 전환사채를 비롯한 비유동부채가 자리잡았다. 비유동부채는 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불어났다.

한편 동성화인텍은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269억 원과 169억 원을 기록하며 모두 흑자 전환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코스닥 시총 지각변동... 바이오 '깡충'

'진단키트 대장주' 씨젠, 40계단 올라 3위... 셀트리온제약 4위에 CJ ENM 시총 1兆 이상 줄며 6위... SK머티리얼즈 12위로 '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두 달 새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이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거 개편됐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개발 소식 등으로 급등세를 이어간 바이오주들이 50위권으로 대거 편입된 반면 제조업 업체들은 하락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은 198조 5766억 원으로, 연초(242조 7681억 원) 대비 18.2% 감소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도 변화가 있었다. 현재 시총 상위 순위(31일 종가 기준)는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12조9120억 원), 2위 에이치엘비(3조8912억 원), 3위 씨젠(2조9146억 원), 4위 셀트리온제약(2조7240억 원), 5위 펠어비스(2조3398억 원), 6위 CJ ENM(2조2828억 원), 7위 스튜디오드래곤(2조1887억 원), 8위

케이엠더블유(1조9990억 원), 9위 코미팜(1조6888억 원), 10위 헬릭스미스(1조4712억 원)다.

이중 연초에도 10위권을 지켰던 기업은 총 7곳(셀트리온헬스케어, 에이치엘비, 펠어비스,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케이엠더블유, 헬릭스미스)으로, 세 종목은 신규 편입됐다. SK머티리얼즈, 파라디이스, 메디톡스는 각각 현재 12위, 17위, 25위에 그치는 등 순위에서 밀려났다.

새로 10위권에 편입된 코스닥 종목(씨젠, 코미팜, 셀트리온제약)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장세에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며 관심을 받았던 기업들이다.

씨젠은 '진단키트 대장주' 자리를 차지하며 시총 순위가 40계단 뛰었다. 연초 3만대에 머물던 주가는 3월 들어 12만 원을 훌쩍 넘어섰고, 시가총액도 8000억 원 초반에서 2조9000억 원대로 뛰었다.

코미팜은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지난달

주가가 부쩍 오르며 시총 순위 30위에서 9위로 안착했다. 9653억 원 규모이던 시총 규모도 1조 6000억 원대를 넘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코미팜은 비소 화합물을 이용한 암성 통증 치료 신약후보물질 '파나픽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한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묶여 동반 상승한 경우다. 셀트리온그룹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항체를 확보했다고 밝힌 23일부터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소위 '셀트리온 3형제' 주가가 급등하며 시총 순위도 올랐다.

반면 10위권을 수성하던 기업들 중에서도 코로나19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조업, 미디어 기업의 경우 모두 시가총액이 떨어지며 순위도 소폭 하락했다. 연초 3위였던 CJ ENM은 시가총액이 3조4122억 원→2조2828억 원으로 하락하며 6위가 됐고, 스튜디오드래곤(2조2786억 원→2조1887억 원), 케이엠더블유(2조2873억 원→1조9990억 원)도 시가총액이 떨어지며 순위에서 밀렸다.

노우리 기자 we1228@

bithumb 빙썸 www.bithumb.com

빙썸 지수 (2020년 3월 31일 17:00, KST)

종목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종목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66,000	3,600 (1.4%▲)	모네로	57,950	1,250 (2.2%▲)
리플	210	-1 (0.5%▼)	비트코인골드	8,670	20 (0.2%▲)
라이트코인	47,210	110 (0.2%▲)	이더리움 클래식	5,985	-90 (1.5%▼)
대시	79,000	1,050 (1.3%▲)	퀀텀	1,459	-2 (0.1%▼)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DOUZONE 더존비즈온 www.wehago.com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고!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고!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p> <p>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p>	<p>내 PC 원격접속</p> <p>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며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p>	<p>채팅&메신저 (WE톡)</p> <p>조직과 업무 단위별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즉시 화상회의, 투표, 설문, 설문조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용 메신저입니다.</p>	<p>화상회의</p> <p>국가와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는 화상회의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문자서비스</p> <p>가계, 연락처와 연동하여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발송을 통해 고객 관리의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제공되는 기업용 문자 서비스입니다.</p>
<p>팩스</p> <p>팩스기 없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팩스가 확인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p>	<p>메일 (IG)</p> <p>기업 메일용 송신, 회사 메일까지 활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와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메일 서비스입니다.</p>	<p>전자결재</p> <p>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업무를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보고가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p>	<p>웹오피스</p> <p>방과, 연방, 파일관리, 워드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웹 오피스입니다. 이제 설치해서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기분정보관리</p> <p>조직도를 통한 직원검색, 수많은 거래처,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 업데이트/승용, 다양한 기업별 행사/행사명 등 기본정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p>
<p>WE드라이브 (10G)</p> <p>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협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 저장소입니다.</p>	<p>일정관리</p> <p>일정 초대와 공유 캘린더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일정 지출, 보고, 관리 업무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지원합니다.</p>	<p>할일관리</p> <p>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기업별 행사/행사명 등 기본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p>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불붙은 수도권 아파트 경매

차익 노리는 투자자 대거 몰려
안산 '두산위브'·인천 '롯데캐슬'...
감정가보다 1억 이상 비싸게 낙찰



**3월 수도권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 상위 10곳**
※ 3월 16~26일 기준 ※ 출처: 지지옥션

주소 및 단지	감정가(원)	매각가(원)	매각가율	응찰자수
수원 영통구 영통동 두산 (59㎡)	2억7200만	3억7089만	136%	32명
안산 단원구 초지동 두산위브 (85㎡)	3억5700만	4억8398만	136%	48명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캐슬골드 (115㎡)	4억4000만	5억6219만	128%	14명
화성 반월동 신영통현대 (135㎡)	3억1700만	3억8199만	121%	6명
수원 권선구 금곡동 일신건영 (84㎡)	2억5400만	3억100만	119%	10명
안산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 (87㎡)	3억5300만	4억1399만	117%	8명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 자연엔어울림 (85㎡)	3억	3억5177만	117%	5명
군포시 금정동 울곡 (60㎡)	3억200만	3억5055만	116%	14명
남양주 퇴계원면 퇴계원리 강남 (126㎡)	3억2500만	3억8899만	114%	5명
구리시 인창동 인창4단지주공 (60㎡)	3억7200만	4억1369만	111%	13명

의 경매 감정가는 3억5700만 원지만 이달 실거래는 1억 원 이상 높은 4억7500만 원 수준이다. 인천 구월동 롯데캐슬골드 전용 115㎡ 역시 감정가(4억4000만 원)와 이달 실거래가(5억3000만 원) 차이가 1억 원에 달한다.

경매시장이 정부의 규제 영역 밖에 있다는 점도 원인이다. 그동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일반 매매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곳이 조정대상지역 등 45곳으로 늘었다. 일반지역에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할 경우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달궈진 수도권 아파트 경매 투자 열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대가 서울 집값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진입 장벽이 낮다보니 입찰 경쟁 역시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경매는 명도(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개발사업 및 교통 여건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도 적지 않다"면서 "감정가가 싸다고 무조건 투자에 나서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아파트 경매시장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이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에 쫓겨 얼어붙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 매물이 나오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수원법원지방법 안산지원 경매2계에서 경매 진행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두산위브' 아파트(전용면적 85㎡)는 4억8398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보다 무려 1억3000만 원 높은 값이다. 48명의 입찰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36%에 달했다. 이날 경매에 부처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전용 87㎡도 감정가보다 6000만 원 비싼 4억1399만 원(낙찰가율

117%)에 새 주인을 찾았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정했던 경매법원이 지난달 16일을 시작으로 문을 연 이후 안산시를 비롯해 군포·남양주·시흥·의정부시 등 경기권 비규제 지역 경매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에 줄줄이 팔려나가고 있다.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2·20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인 인천에서도 경매 열기가 뜨겁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캐슬골드 전용 115㎡형은 최근 감정가보다 1억2000만 원 비싼 5억6219만 원(128%)에 낙찰됐다.

규제지역도 경매가 열기가 달아오르긴

마찬가지다. 남양주시 별내동 남광하우스 스토리 전용 124㎡형과 104㎡형은 모두 104%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안양시 만안구 한솔아파트 전용 84㎡형 낙찰자는 감정가보다 1000만 원 높은 3억1020만 원(103%)을 입찰가로 써냈다.

2·20 대책으로 전체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버린 수원시 아파트 경매시장도 들끓고 있다. 영통구 두산아파트 전용 59㎡형은 감정가보다 1억 원 비싼 3억7089만 원에 낙찰됐다. 권선구 금곡동 일신건영 전용 84㎡형 낙찰가율도 119%에 달했다. 감정가보다 5000만 원 높은 3억 원에

낙찰된 것이다.

특히 이달 낙찰가율 상위 10곳에 이름을 올린 아파트 경매 물건은 모두 유찰없이 새 주인을 찾았다. 경매시장에 물건이 나오자마자 응찰자들이 소위 '간'을 보지 않고 낙찰에 뛰어들었다는 의미다.

부동산 규제 여부를 막론하고 수도권 지방에서 경매 열기가 들끓는 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감정가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법원 경매시장에 대기 중인 수도권 아파트 물건의 감정가는 대부분 지난해 하반기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수원이나 인천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최근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현 시세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은 셈이다.

실제 안산시 초지동 두산위브 전용 85㎡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철회를” 집단 이의신청에 국민청원까지

“건보료 등 조세 부담 늘어” 아우성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주인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체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나섰고, 급기야는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철회하라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시장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이의제기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일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정부는 지난 달 18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99% 올랐다. 서울의 평균 인상률은 14.75%로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 이상 올랐다.

이에 청원자는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공시가격 인상

을 통한 징벌적 과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지표에 연동된 준조세 부담도 늘어 중산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수요자들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면적 76.79㎡형은 공시가격만 놓고 보면 올해 13억9200만 원으로 지난해 10억8000만 원 대비 40% 가까이 급등했다. 그러나 이 단지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한달 새 1억 원 이상 하락했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괴리감이 커지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하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리센츠 단지 등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단체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이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문선영 기자 moon@

내수 부진에 상가 급매 늘고 가격 떨어져

올 1·2월 거래량 21.8% 늘어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면서 전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늘었다. 하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크게 떨어졌다. 월세 수익을 제대로 못 올리는 건물주들이 상가 건물을 급매로 처분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상업용 부동산(판매시설) 거래량은 1443건으로 작년 동기

(1185건) 대비 258건(21.8%)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1267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87.8%를 차지했다.

올 들어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늘어난 반면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약 916만 원으로 전년 동기(1187만 원) 대비 271만 원 하락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 충격도 커 당분간 침체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COVER STORY 에이저리스를 정의하다

- PART1. Activity - 액티브 시니어, 스티브 액티비티
- PART2. Group - 젊은 감성 'Great Grey'가 모인다
- PART3. Elegance - 젊은 세대 넘어선 '역사리' 완성
- PART4. Love - 여전히 매력적인 당신, 사랑 나누기 좋은 때
- PART5. Earning - 몸은 늙었지만 투자는 '청춘'
- PART6. Spending - 젊은 취향의 시니어, 소비 트렌드를 이끌다
- PART7. Study - 배움이 있는 한, 젊음은 '현재진행형'



선라보가 만난 사랑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공정과 감사를 말한다
'상글영글소' 진행자 김예연



모두가 스승,
모든 것에 감사하며 실재
소설가 김홍신의 회담과 재밌음



해자를 통해 큰 세상, 해자가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말한다
국내 최고 해자 조각 작가 최인호



더불어 숲
오솔길 하나 마음에
들어놓고 살자

고수열전 '나 홀로 항해로 망명대해를 노닐다'

그의 집은 바다에 있다.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다. 품과 정신의 집, 그걸 바다에 두고 산다. 다시 일해 바다에 올린 사람이다. 모트를 타고 대양을 누비는 모험에 심취해 멀리 남은 욕망이 없다. 이렇게 끝없이 길어지자 즐거움이 커졌다. 즐거움이 커 끝없이 깊어졌을 수도 있겠다. 여해든 단 한 번 주어진 생을 으쌰으쌰 즐거운 쪽으로 풀아가는 사람의 정경엔 노련한 인생 함해술이 비친다. 독심과 냉만으로 반죽된 교유의 기쁨이 서려 있다.



Living & Home
집 안으로 스민
산뜻한 자연,
보태니컬
리빙 아이템



가까이 꽃이 피고 초록빛 생기가 가득한 4월이다. 봄기운 머금은 자연에 퐁퐁 빠져들고 싶지만 마음처럼 나설 수 없는 요즘, 산뜻한 보태니컬 패턴이 가미된 리빙 아이템으로 아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시니어 발상
올메이드 사생활을
신그러운 봄날,
시금치의 화려한 변신

투자 고수와 놀자
최저산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수석팀장
은퇴 후에도
고정수입 올리는 법

생생 부동산 현장
황금노선 품은
황금도시 될까



서울시 송파구 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삼곡동, 하남시 학암동이 잇달아 위례신도시 부동산시장이 다시 공들이고 있다. 그동안 경제발전 개발 효과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 신도시가 품은 호재와, 실제 투자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원격 수업'... 막막한 교육현장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

교사들 IT응용 지식 부족하고
질문 없는 주입식 수업도 한계
"와이파이 안 깔린 곳 적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70여 년의 한국 교육 역사에서 학교가 문을 열지 않고 수업을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자 정부는 결국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원격교육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일정도 2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이달 9일 먼저 실시한다. 일주일 후인 16일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이 각각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20일 초등학교 1~3학년이 영상을 통해 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발표한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하이마트 매가스토어 노트북PC 매장서 직원들이 사양 등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한산한 서울 창신동 문구·완구 종합시장 모습에 대비된다. 뉴스시

업을 진행한다.

◇교육 현장 대혼란... 인프라 확충 시급 = 정부가 2월 23일 이후 세 번의 개학 연기로 이미 법정 수업일수 감축에 돌입한 만큼 더는 개학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마련한 '공여지책'이다 보니 인프라 부족, 디지털 기기 격차, 수업 부실 등 선결 과제 가산터미다.

특히 온라인 개학의 핵심인 원격 수업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부문은 이달 초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행 중인 각 대학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 만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그나마 교사가 개인장비를 활용하려면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어야 하지만 미흡한 학교(교실)도 많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학교의 정보기술(IT) 기반은 20년 가까이 뒤쳐져 있다"며 "보안을 이유로 학교에는 특별실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와이파이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컴퓨터에는 웹캠과 마이크가 없어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IT 지식·경험 부족...질문 사라진 수

업 = 온라인 개학은 교사에게 전공이 아닌 IT응용 능력 등 다른 재능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은 초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위원은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사설 학원 강사들의 현란한 인터넷 강의에 익숙해 있어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이 과연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예로 든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실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실습, 실습, 토론 수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창의력·논리력과 직결되는 질문은 사라지고 주입식 수업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점도 원격 수업의 한계다.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서울에 사는 학부모 김모(49) 씨는 "온라인 수업에 아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격 수업은 사실상 개학 연기나 마찬가지로 재수생보다 불리한 수험생들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학이 계속 늦어지면서 아이가 이미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원격 수업만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사교육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서울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6월로 다시 연기"

1·2회차 합산 2935명 선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자 4월로 한 차례 연기한 올해 제1회 서울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을 6월 전국 공통으로 치르는 제2회 지방직 시험과 병합해 실시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3월 말 현재 해외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환자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서울시 공무원 공채 시험은 지역 제한이 없어 전국 응시생이 서울로 이동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과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날짜를 변경하게 됐다"며 "당초 예정이었던 제1회 선발 인원 650명과 6월 실시되는 전국 공통 공채시험 선발인원 2285명을 합산해 총 2935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2회 지방직 시험일은 6월 13일이다. 제1회 시험은 전년도 미채용 인원과 돌봄SOS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등 추가 채용시험으로 당초 지난달 21일 시행 예정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음 달로 1차 연기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35명 증가한 9786명이다. 4126명이 격리 중이고 5408명이 퇴원했으며 162명이 사망

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28명 늘어난 454명이다. 347명이 격리된 상태이며 107명이 퇴원했다. 신규 확진자 28명 중 해외 접촉 관련이 8명이며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이 17명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지난달 25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31일 오전 10시 현재 관련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다"며 "이 중 서울 시민은 29명, 타 시도 확진자는 3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총 487명으로 44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1명이 검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희 기자 jh6945@

참존 창업주, 31억 대여금 소송 패소

김광석 전 회장 무변론 일관 400억 배임·횡령 혐의 수사

참존 창업주인 김광석 전 회장이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의 대여금 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최근 참존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31억여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다 패소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존 측은 "김 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회사로부터 35억 원을 빌리고, 이 가운데 일부인 13억5000여만 원만 갚은 채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9차례 걸쳐 총 10억 원을 빌리고도 갚

지 않았다"며 "차용금의 변제를 수차례 독촉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존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2월부터 12월 까지 매월 적게는 1억25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5000만 원을 빌렸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참존의 회사 돈 400억 원대를 배임·횡령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회사돈으로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 19년간 37억 원을 현금으로 낸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해외 유명 수입 자동차 딜러사 등에 차용증이나 이자 없이 42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참존은 2019년 10월 김 전 회장을 해임하고 이영인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전문 경영인 체제에 나섰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참존의 새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참존은 약사 출신인 김 전 회장이 1984년 설립한 회사다. 청개구리 광고로 유명해져 1990년대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 들어 화장품 브랜드숍 등에 밀려 침체기를 맞았다.
김종용 기자 deep@

농협, 환급가산금 1억4000만원 돌려받는다

대법 "중부세 증액경정처분 분할납부 아냐" 원심 파기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과세소송에 승소했으나 일부 돌려받지 못하고 남은 1억여 원의 환급가산금을 전부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월 농협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과세물건 추가, 면적 변동 등을 이유로 2012년(1차)과 2014년(2차) 두 차례에 걸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중부세) 등을 추가 납부했다.

이후 농협은 중부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2016년 승소가 확정되면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농협이 낸 중부세는 같은 과세연도 등에 대한 세금을 1차와 2차에 걸쳐 분할납부한 것으로 보고 환급가산금

을 계산해 돌려줬다.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납수 계산을 위한 첫날)은 국세 납부일로 하되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농협은 "1·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는 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지급한 환급가산금 1억4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분할납부가 아닌 만큼 각각의 세금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동일한 과세연도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 1·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중부세 납부는 국세기본법상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라고만 규정하

고 있을 뿐"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환급가산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 실제 조세를 초과 납부한 시점에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환급가산금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납세자가 애초의 신고 또는 부과나 증액경정처분마다 각각의 세액을 별도로 납부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상 '분할납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이 판결 등에 의해 취소된 경우 효력은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해 발생한다"며 "취소 사유에 따른 환급세액이 특정된다면 국세환급금은 각각의 '납부일'에 소급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서울시,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500만원 지원

'공정임대료' 서비스도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의 이중고를 겪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상가를 홍보해 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

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로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주 1회 상가 건물에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 선발해 방역 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Powered by Innovation

전세계 어디서든

장비의 위치와 상태, 가동 현황을 파악해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DoosanCONNECT™의 스마트 기술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갑니다

인프라에 스마트를 더하다

두산인프라코어



장비위치정보
강원도 삼척



소모품 교체 알림
엔진오일필터 (3일)



평균 연비
21.8 L/hr (지역 평균 24.3 L/hr)



*DoosanCONNECT™
고객-장비-본사 직원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입니다

“삼성과 함께 온디바이스 머신러닝 분야 선도할 것”

美 컴퓨터학회 록스타상...삼성리서치 니콜라스 레인 박사

英 케임브리지 AI센터 소속으로 미국 외 연구자 수상은 처음 “모바일 학습 알고리즘·시스템 설계 새 패러다임 제시” 평가

“이번 수상은 온디바이스 머신러닝 분야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함께 해당 분야를 이끌어가는 데 기여하겠다.”

삼성리서치(삼성전자 세트부문 선행 연구개발 조직) 영국 케임브리지 인공지능(AI) 센터의 니콜라스 레인(Nicholas Lane·사진) 박사가 2020 미국 컴퓨터 학회(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이하 ACM) 모바일연구분과회(SIGMOBILE) 록스타 상을 받았다.

레인 박사는 “록스타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고, 이는 수년간 뛰어난 동료들과 협업해 이룬 결과”라고 삼성전자 뉴스룸을 통해 소감을 밝혔다.

ACM은 컴퓨팅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학술 단체로, ‘IT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 어워드(Turing Award)를 주관하기도 한다. 그중 모바일연구분과회는 모바일 컴퓨팅 분야 전반에 몸담은 과학자·엔지니어·기업가·교육자·학생들로 구성된 국제 전문가 협회다.

이 협회는 2013년부터 ‘록스타 상’을 만들어,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초기 커리어를 탄탄하게 다진 40세 이하 연구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후보군은 동료들의 추천으로 결정된다. 특히 레인 박사는 미국 외 지역 소재 대학의 교수로서 수상한 첫 사례라 더 의미가 깊다.

시상 위원회는 “제한된 리소스를 가진 모바일 기기 내 ‘학습 알고리즘’과 ‘시스템 설계’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



고, 이를 통해 복잡한 사용자 행동과 환경 이해·추론·동작 방식 연구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샀다”며 레인 박사를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을 밝혔다. 영국 케임브리지 AI 센터에서 온디바이스

(On-device) AI 디렉터를 맡고 있는 레인 박사는 임베디드를 포함한 폭넓은 하드웨어 환경에서 주어진 성능에 맞춰 딥러닝 모듈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알고리즘과 시스템 연구에 집중해왔다.

삼성전자는 2017년 삼성 리서치(Samsung Research)를 출범시켰으며 산하에 AI 센터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인공지능 관련 선행연구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한국 AI 총괄센터를 신설하고 AI 연구 역량을 다져왔으며, 이듬해 실리콘밸리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AI 관련 글로벌 우수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 분야에 강점을 가진 영국 케임브리지, 캐나다 토론토, 러시아 모스크바에 AI 연구센터를 추가적으로 개소했다. 또한,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삼성전자 임원이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삼성 글로벌 AI’ 포럼도 개최해 오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배국환 前차관, 삼표그룹 부회장에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일자로 삼표그룹 부회장으로 취임한다.



31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배 신임 부회장은 1956년생이다. 경북고,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권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 이다원 기자 leedw@

한국야쿠르트, 윤호중 회장 추대

한국야쿠르트는 이사회를 통해 윤호중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해 6월 별세한 고(故)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선대 회장의 아들이다. 1995년 한국야쿠르트에 입사한 그는 2012년 부회장 자리에 올랐으나 2015년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공식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신임 윤 회장은 “선대 회장의 뜻을 이어 받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농협금융 부사장에 김인태 부행장

농협금융은 부사장에 김인태 농협은행 부행장을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자격 검증 후 전일 주주총회 의결로 최종 선임됐으며 임기는 4월 1일부터이다. 공석이 된 농협은행 부행장은 함용문 농협파트너스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은행 부행장 인사는 업무 경력을 고려해 담당 업무를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객산 기자 jinsan@

한국증권금융 상임이사에 홍인기

한국증권금융은 31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갖고 홍인기 자금운용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홍 신임 상임이사는 서강대에서 경영학을 수학하고 연세대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이후 한국증권금융 자본시장부문, 기획부문 등에서 부사장을 맡았으며, 자금운용본부에서 본부장을 역임했다. 이정희 기자 ljh@

부음

▲김행사 씨 별세, 김인권(LF 흥보마케팅실 상무)-소은-정은 씨 모친상, 서현정(옥시리켓벤처지홍보이사) 씨 시모상, 김대학 씨 장모상 = 3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일 오전 8시, 02-2258-5940

▲정태기 씨 별세, 정홍용(DB메탈 고문)-하용(전 강남화성구 대표)-순용-선희 씨 부친상, 윤덕기(고려대 의대 명예교수)-조맹기(단국대 의대 명예교수) 씨 장인상 = 3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일 오전 06시, 02-3410-6914

‘희망날개·희망공간’ 사업자 모집 포스코1%나눔재단 5월 29일까지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항·광양지역 대상으로 운영 중인 ‘희망날개’와 ‘희망공간’ 사업 신규 대상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작년부터 시작된 희망날개는 선발된 장애인들에게 의족, 맞춤형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독서대 등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직) 중인 장애인과 과학·기술, 예술·체육 등 분야별 꿈을 가진 장애인을 발굴할 계획이다. 희망공간은 열악하고 노후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안전성과 편의성 등 복지 공간 및 시설을 개선해 장애인들의 편리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공간 지원 대상은 포항, 광양시 30인 이하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주간·단기보호센터 등이다.

희망날개, 희망공간 신청은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포스코1%나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고 작성한 후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이 와중에 ‘코로나 정치’ 하는 트럼프

최근 주가 오른 쿠오모 거론하며 “바이든보다 나은 대선후보”

쿠오모는 “코로나를 정치화 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이 ‘정치’를 하다가 뒤편을 맞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앤드루 쿠오모(오른쪽) 뉴욕주지사 와 맞붙게 되는 것을 개이지 않는다”면서 “쿠오모 주지사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보

다 더 나은 대선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주가가 치솟은 쿠오모 주지사를 띄우고 바이든 전 부통령 깎아내리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쿠오모 주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자신 덕분이라는 말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쿠오모 주지사가 코로나19 차단 업무를 잘 해나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많은 것을 보냈기 때문”이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진료소 설치와 인공호흡기·마스크 공급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를 향해 “코로나19 팬데믹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그는 트럼프의 발언 후 진행된 일일 브리핑에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서 “대통령과의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쿠오모는 대통령의 언급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도 정치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라며 “정치는 있어라. 국가적 위기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정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블랙록 CEO “코로나19 끝나면 엄청난 기회 올 것”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절망에 빠진 가운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사진)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핑크 CEO는 경제가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계 되면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신에서 “금융계에서 44년 넘게 종사하면서도 이런 사태는 경험한 적이 없다”며 “매우 극적인 상황이지만 전형적인 금융위기처럼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별로 없어 경제가 꾸준히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핑크 CEO는 “이번 팬데믹으로 투자심리와 사업관행, 소비성향이 모두 바뀔 것”이라며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은 공급망의 ‘적시공급’과 항공여행에 대한 의존도를 재평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무역투자실장 나승식
-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안전지원과장 양진한 △국립재활원 기획홍보과장 변부나
-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공공노동정책관 양성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이현수 ◇국장급 승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견양정열 ◇과장급 전보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서명석 △청년고용기획과장 운영기
-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공업연구원 이시희
- ◆방송통신위원회 ◇실장급 전보 △사무처장 최성호
- ◆조달청 ◇과장급 전보 △시설총괄과장 임병철 ◇과장급 직위승진 △설계예산검토과장 박한도
- ◆한국조폐공사 △부사장 겸 총무이사 정상운 △기획이사 김영석
-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부원장 정지영 ◇단장 △안전관리단장 이완로 ◇부장 △품질경영부장 남지희 △방사선안

- 전관리부장 이정일 △원자력환경방재부장 이관엽 △안전방호부장 황인아 ◇실·팀장 △해체복원사업실장 김근호 △원자력환경실장 임종명 △원자력방재실장 김현기 △원자력통제실장 김민철 △연구실안전팀장 박승환 △물리적방호팀장 장수권 △시설팀장 이강우
- ◆한국연구재단 △나노·반도체단장 김덕기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획관리본부장 오승원 △학술진흥본부장 강필선 △건설지원단장 한지성 △기획예산팀장 홍지혜 △경영지원팀장 이원선 △회원지원팀장 김병균 △홍보팀장 전아름 △학술진흥팀장 이정민 △국제협력팀장 박현담 △과학문화팀장 박금주 △건설지원팀장 오정택 △정책연구팀장 이강준 △정책이슈팀장 엄정옥 △감사실장 임형주
- ◆대한주택건설협회 ◇임원 선임 △상근부회장 서명고 △기획상무이사 이승재 ◇전보 △정책관리본부장 김수정 △전략기획본부장(직무대리) 이호상 △감사실장 정동주 △정책관리본부 임대주택부장 금동욱 △인전광역사회 사무처장 정동환 △경기도회 차장 유희봉

-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지회장 △브라질 상파울루 이윤기 △호주 브리즈번 정상국 △캐나다 프론펜 장영도
- ◆동양생명 ◇승진 △IT전략파트장 김형진 △IT운영2파트장 주승욱 ◇전보 △IT운영1파트장 황진우
- ◆신영증권 ◇이사대우 승진 △DCM부 김민수 △APEX패밀리오피스부 윤환진 △인텔리전스전략실장정재은 △자산운용부 김강연 △해운대지점 박은실 △해운대지점 서영숙 ◇부장 승진 △구조화금융부 정성훈 △미래금융팀 원덕연 △IT기획팀 서성호 △FICC파생운용부 송선범 △재무관리팀 최인태 △파생전략운용부 성시현 ◇본부장 보직 △리스크관리/기업문화본부 이승환 △오피레이션본부 김동준 △자산배분솔루션본부/패밀리헤리티지본부 김대일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오영표 ◇담당 임원 보직 △광주지점/대치센터 왕운식 △반포지점/압구정지점 허도웅 △브랜드전략팀 윤재섭 △SP세일즈부/에쿼티파생운용부/파생전략운용부 천신영 △연금건설팀부/영업부 임재경 △커스터머저니부 권형진 ◇부사장 보직 △경영지원팀장 기영 △기업금융부 김홍섭 △디지털결제

- 팀 장영석 △리스크심사팀 이동규 △명동지점 임진 △IT고객지원팀 홍만기 △IT업무지원팀 정의석 △SP OM부 강환규 △FICC파생운용부 조항섭 △정보보호팀 오세진 ◇부장 전보 △DCM부 김종덕 △DCM부 김태우 △신탁사업부 조태형 △전략투자부 임돌이 △파생전략운용부 김성환
- ◆리딩투자증권 ◇전무 신규 선임 △투자금융본부 노치영 ◇상무 승진 및 보직 △SF본부장 이정근 ◇팀장 보직 △혁신전략팀장 조진모 △인재혁신팀장 정경순
- ◆이스트프링자산운용 〈승진〉 ◇상무 △이창일 컴플라이언스 & 리스크관리본부 ◇상무부 △김영훈 리테일영업본부 리테일영업팀 ◇이사 △최원태 경영관리부 경영전략본부
- ◆유한양행 〈승진〉 ◇전무 △중앙연구소장 오세웅 △임상개발부부장 임효영 ◇상무 △마케팅2부부장 정주영 △법무실장 박은희 △관리부부장 손정수
- ◆CBS △미디어본부 경인센터장 구유희
-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조능희 △부사장 김종규

미국은 지금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쏟아내는 2조2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과 대형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의 급전 마련을 도와주는 회사채의 무제한 매입에 활용될 예정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뿌려진 헬리콥터 달러가 결국 대부분 대형 금융회사들의 회생에 활용되었던 과오가 똑같이 반복될 형세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스레를 떨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확진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자 결국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인, 미국 국내 총생산(GDP)의 10%를 웃도는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경제회생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더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꿈쩍하지 않던 독일 정부도 GDP의 30% 수준에 달하는 긴급 경제회생 전략을 발표하였다. 선진국들의 이런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전대미문의 위기인지 방증한다.

일부 느긋한 경제사학자들은 이런 팬데믹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1918~1919년에 걸쳐 유럽을 중심으로 발효했던 스페인독감은 전 세계에 걸쳐 약 50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14세기 흑사병의 경우 유럽 인구 3분의 1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했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전대미문이라는 주장은 호들갑이라고 이야기한다. 심지어 흑사병이 유럽 농노의 절대감소를 초래하면서 중세 봉건사회가 붕괴하고 근대 시민

사회를 열어주는 사건이었으며, 스페인독감 역시 산업의 자동화와 혁신을 촉진하였다고 해석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비슷한 역사 발전의 추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과 뼈아픈 통증에도 불구하고 투기적 자본으로부터 세계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분노할 줄만 알고 이성적 분별력을 상실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인류가 지속적으로 환경 파괴를 확산시켜온 결과 첨단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모든 역사적 충격과 통증은 결국 역사 발전의 동력이라는 기계적인 해석에 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과 20세기 초의 스페인독감, 그리고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위기로부터의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새로이 찾아야 한다.

첫째, 세계 각국이 전에 없던 수준의 초강력 위기대응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그것

은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팬데믹 대응책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의 대부분은 금융위기 때 나왔던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동시에 진행되었던 확장적 재정정책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한 형태이다. 금융위기는 미국발 부동산 거품 붕괴에 의해 초래된 유동성 위기였던 만큼,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심리적 위축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사회적 격리가 강제되는 상황이다. 즉 코로나바이러스를 실질적으로 제압하기 전에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이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부터 경제활동 활성화 이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바이러스 억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코로나 사태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변이라는 점이다.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이 최초의 숙주가 되어서, 급기야 인간에게도 전염이 가능하게 되는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즉 무분별한 산업화를 위한 환경훼손

의 결과로 야생동물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에 못지않게 신종 바이러스를 창궐하게 만든 주요 원인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약탈하는 사회시스템이라는 것이다. 20세기 문명국가의 상징이었던 미국이 전염병 창궐 국가가 된 배경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어렵사리 마련하였던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인 오바마케어는 물론 미국의 전통적 사회안전망을 취임 이후 모두 파괴해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돌이켜보면 적어도 미국에서의 코로나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인 것이다.

이런 인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쏟아내는 2조2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대기업과 대형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의 급전 마련을 도와주는 회사채의 무제한 매입에 활용될 예정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뿌려진 헬리콥터 달러가 결국 대부분 대형 금융회사들의 회생에 활용되었던 과오가 똑같이 반복될 형세다. 친환경 정책과 친시민 정책이 동시에 회복될 경우에만 지금의 인재를 극복할 수 있는 물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중수의
따뜻한 금융

IFK임팩트금융 대표

최근 정부가 마련한 '참 이상한 나라'라는 홍보영상이 눈길을 끈다. 부족한 의료진을 돕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이 대구로 모이고, 마스크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재봉틀을 잡았으며, 건물주들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대료를 내리고, 사람들은 기부금을 출연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분열과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차에 오랜만에 보는 감동으로 다가왔다.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해외에서 이러한 '이상한 나라'를 배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학교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 기업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종교 활동도 현장 예배를 지양하고, 국민이 모두 다중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있다. 이동이 제한되고 활동이 정지된 사회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자영업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항공, 여행, 유통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내수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와 연관된 대기업들도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 제조업체 생산 중단이 중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산업 전체가 마비되어 가는 모습이다. 영향받지 않는 사회의 구성원이 없는 것 같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수준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에서 아직 치료제가 만들어

'참 이상한 금융'

지지 않은 상태이고, 터널의 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경험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시화하고 있는 금융과 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 곳곳의 자금 애로 해소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민생 금융안정자금을 10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역대 최고의 지원이다. 당초 1차 회의에서 결정된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획기적으로 넘어서는 조치이다.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확장한다. 선제적 조치를 하면서 속도감 있게 집행하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이러한 정부의 긴급한 조치가 체감되지 않는다. 돈 냄새를 맡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지원금 실행절차가 복잡하고 기존 금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긴급하게 자금

이 필요한 수요자들, 특히 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거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취약 계층들에게는 속도감과 유연성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현장에서의 관료성을 벗어나야 한다. 금융감독 기관이 나서서 예외적인 감독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다루는 일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수술은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다. 대규모 구조조정기금이 투입되었던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의 공언대로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자원봉사조직이라는 느낌을 주어도 좋을 것 같다. 정통 금융인의 시각에서 볼 때 '참 이상한 금융'이라고 느껴질 만큼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헤르만 로르사흐 명언
"나에게 건강한 아기 열두 명을 달라. 무작위로 한 명을 선택한 후, 그 아이를 훈련하여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도 길러 낼 수 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심리테스트를 통해 인격진단에 쓰이는 로르사흐 검사의 창시자이다. 10장의 도판에 잉크 얼룩으로 연상실험(聯想實驗)을 해 '정신진단학'으로 발표했다. 그는 오늘 작고했다. 1884-1922.

☆ 고사성어 / 낭중지추(囊中之錘)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남의 눈에 땀을 비유하는 말. 진(秦)이 조(趙)나라 수도를 포위하자 조정은 평원군을 초(楚)에 보내 도움을 청하게 하였다. 그가 20명 수행원 중 한 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을 때 모수(毛遂)가 자전(自薦)했다. 평원군은 "현명한 선비가 세상에 있는 것은 비유하자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같아서 그 끝이 금세 드러나 보이는 법이오[夫賢士之處世也 譬若錘之處囊中 其未立見]라며 빈객으로 있는 지 3년이나 되었으나 들은 적 없는 모수를 거절했다. 끝내 일행에 기담한 그는 초나라와의 교섭에 큰 활약을 하였다. 출전 시기(扈謁) 평원군우경열전(平原君處劇列傳).

☆ 시사상식 / 녹인 배리어(knock in barrier)
주거연계증권(ELS)에서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주가 수준. 기초자산 가격이 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만기 지수 하락률 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A사와 B사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50%의 녹인 배리어가 설정된 경우, 둘 중 하나의 주가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 유머 / 좌절된 미남
지방 출장이 잦은 친구가 틀게이트에 들어섰을 때, 여직원이 "미남이시네요"라고 하자 친구도 "그쪽도요"라고 화답했다. 여직원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며 한 말. "미남이시라고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김범근 금융부/nova@

기업은행 '공감·소통 능력' 키워라

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중신용(4~6등급) 소상공인들의 대출은 모두 기업은행 몫이다. 여기에 3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기업은행이 위탁받는다. 기업은행 직원은 대출 심사부터 발급까지 대출업무 전반을 5일 이내에 해야 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려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려는 마음은 기업은행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장을 생각하지 않는 윤종원 행장은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임 후 2주에 한 번 노조와 만나 소통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지 오래다. 소통이 떠난 자리에 단절만 남았다. 지난달 기업은행 노조는 대구 등 지역 영업점을 돌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윤 행장에게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윤 행장은 노조의 현장 방문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고, 공감도 얻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노조는 지난달 영업점 대란을 막기 위해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윤 행장에게 의견을 전달했지만 "상황을 지켜보자"는 대답만 돌아왔다. 은행 대출은 통상적으로 초반 대출 상담 기간에 업무가 폭증한다. 결국, 대책 없이 직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윤 행장은 취임식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힘을 모으고 마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귀를 닫고 대책을 미루는 윤 행장의 태도는 동반자인 직원들에게 웃음 대신 고통만 남긴다. 그러는 사이 노사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고객 불만은 높아질 것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자본시장1부 (02)799-2647	자본시장2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대표전화 (02)799-2600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랩부 (02)799-2664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코로나 '과제 폭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 초·중·고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정부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개학에 중학교 3학년인 큰딸은 좋아한다. 그동안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에서 내놓은 수행 평가 등 과제 폭탄에 새벽 1~2시까지 씨름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큰딸이 엄마에게 출력을 부탁한 학교 과제를 보면 나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량이다. 각 과목 선생님은 '한 달을 쉬는데 이 기간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과제를 내놓은 것 같다. 하지만 각 과목을 더하면 한 달 안에 하기에는 도저히 무리인 것 같다. 성적에 반영되다 보니 큰딸은 기를 쓰고 과제에 매달리고 있다.

아마도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원에 학생을 못 가게 배려한 것 같다고 자조해 본다. '중 3이라 올해부터 학원에 보내야 할 것 같다'는 아내의 생각이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좌절됐지만 과제 때문이라도 학원에 보내지 못했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휴원 현황'에 따르면 27일(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에도 서울 시내 문을 연 학원은 83.1%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지인들의 얘기로 강남에는 팀으로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그야말로 코로나19가 강남 지역 학생들과 비강남 학생 간의 교육 편차를 더 키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강남 지역 학생들은 학원을 여러 개

데스크칼럼

신동민
정치경제부장



다닌다고 하는데 학교 과제를 어떻게 다하는지 의문이 든다. 강남 지역 학교들은 선생님이 과제를 많이 안 내든가 아니면 '부모 찬스'를 써 과제를 하는 것일까. 계층 간 이동사다리인 교육 문제가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완전히 나뉘었다는 말이 많았는데 코로나19로 더 실감 나는 상황이다.

예전 드라마를 보면 가난한 집안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뒷바라지했던 옛 애인을 버리고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스토리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 드라마를 보면 재벌 3세가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하는 스토리가 많은 것 같다. 최근 종영한 '이태원 클라쓰'라는 드라마처럼 가난한 집 아들 성공스토리로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재벌 3세는 등장했다. 그만큼 가난한 집 아들이나 딸이 공부해서 성공하는 스토리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드라마 스토리도 변화하는 것 같다.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을 보면 씁쓸하다. 학교에 수험생은 있어도 학생은 없다는 말이 있다.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친필 메모가 공개됐는데 그중 교육 정책이 미완으로 남은 점이 가장 어렵다고 적은 데서 교육자는 우리 사회의 거

대한 기록권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나마 교육부가 뒤늦게 교육 격차 해소 방안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하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또 과제 폭탄을 내놓을까 우려스럽다. 상당수 과제는 교육을 위한 과제라기보다는 성적 평가를 위한 과제로 내놓은 것이 많다. 인성 함양을 위한 과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우스갯소리로 학교 과제는 부모에게 내는 숙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 혼자 하기에는 힘든 과제도 많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 같다. 미국에 있는 조카들은 중·고등학교 때 과제가 많지 않아 방과 후 취미 활동이나 클럽활동을 많이 한다고 한다. 차라리 해외로 유학을 보낼까도 생각하지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편안히 우리나라에서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참에 정부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 메스를 들어 봤으면 좋겠다. 먼저 교사 선발부터 성적 위주의 교사 선발이 아닌 인성을 갖춘 교육자를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면 좋겠다. 교육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물론 대다수 교사들은 참스승으로서 교육현장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다만 인성 없는 몇 명의 교사가 전체 물을 흐려놓고 있어서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되길 꿈꿔 본다.

lawsdm@

설경진의 시정 24시

사회경제부 차장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북미 등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31일 기준 코로나19 발생국은 200여 개국으로 확진자는 78만여 명을 넘었다. 누적사망자는 3만8000여 명에 달한다. 코로나19는 이제 지구촌 모든 사람을 불안과 분노, 우울한 정신세계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일상도 확 바꿔 놓았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매일 강조되고 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이어지던 대면영업이 줄어들고 개인위생이 더 철저해지고 있다. 대면 활동이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온라인 교류는 늘어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야만 했던 일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이 바꾼 일상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집에 틀어박혀 '코로나 블루'를 겪는다. 주변 식당들은 개점 휴업 상태다.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은 긴 행렬을 이룬다. 모든 스포츠 행사, 지역 축제가 중단되고 말았다. 오늘부터는 새벽 1시까지 운행되던 서울 지하철이 1시간 단축된 자정까지만 운행이 된다.

코로나19 창궐에 '경제 방어기'가 걱정된다. '코로나 고립주의'로 국경은 차단되고 국제항공편이 중단됐다. 국가 간 교역 위축,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세계 경제는 혼돈에 빠졌다. 이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어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라는 잦은 전망이 가득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일상을 보내야 하는 불안감은 갈수록 사람들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든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간혹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안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새로운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

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배려는 상대방을 위해 무엇인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꼭 지키라는 것은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지켜야 한다.

과거 전염병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전 세계인이 겪고 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측은 있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버지니아 울프의 일기를 보면 "미래는 어두운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대체로 미래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다"라는 글귀가 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희망을 품는다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새로운 일상'이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 전략을 제대로 마련한다면 저성장기에 빠진 한국에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skj78@

시설

실물경제 수직 하락, 기업활력 비상 대책을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에 따른 실물 경제 마비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부터 그렇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2월 국내 경제의 생산·소비·투자가 급격히 줄었다.

전산업 생산이 전월대비 3.5% 감소해 2011년 2월(-3.7%)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18.1%) 등이 특히 부진하면서 서비스업이 3.5% 줄었다. 소비의 경우 소매판매가 6% 하락해 9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 운송업은 항공여객 -42.2%, 철도운송 -34.8%, 여행업 -45.6%로 고꾸라졌다. 의복소비와 자동차 판매도 22.4%씩 감소했다.

제조업 가동률도 추락했다. 2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7%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69.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설비투자(-4.8%)와, 건설업체들의 시공실적인 건설기성(-3.4%)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경기회복을 기대가 멀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9.8로 전달보다 0.7포인트(P) 낮아졌다. 1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기업들의 체감경기 또한 최악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한 달 전보다 9P 하락한 56이었다. 2월보다 10P 떨어졌고,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다. 4월 업황전망BSI는 54로 더 나빠질

것임을 예고한다. 낙폭으로도 한은이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래 가장 크다. 자유낙하하는 실물경기 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단기간 내 회복될 희망을 찾기 어려운 게 문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진정되기 이전에는 끝날 일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과거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각국의 국경봉쇄와 이동제한으로 글로벌 경제의 생태계를 떠받쳐온 공급사슬이 붕괴되면서 대외 교역에 기대 성장해온 우리 경제의 뿌리가 흔들린다. 정부 또한 비상한 대책을 동원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경영 안정과 대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 100조 원의 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한은도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선다. 지원 계획이 기업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비상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생산과 수출, 소비기반의 붕괴로 인한 기업도산을 막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금융지원으로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와 반(反)시장 정책의 철폐, 저생산·고비용 노동시장 구조 개혁,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걸 해야 한다.

세무, 특! 법인세 신고·납부 연장 대상 기업은

매년 3월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다. 12월 말 결산법인인은 3월 안에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필자 역시 회원 법인들의 세무 신고 대리업무로 살인적인 3월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세청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대상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중국교역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 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등이다.

위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 신

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징수 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착수 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지역 기업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돼 5월 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니, 해당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매출·매입자료를 챙기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삼성 제트의 필터과학으로 오늘을 지키세요

댕댕이와 신나게
뛰놀고 들어온 날에도

삼성 제트만의
99.999% 미세먼지 배출 차단 기술과
청정스테이션이 우리집 공기를
언제나 깨끗하게 지켜주니까

*미세먼지 배출 차단 수치는 국제표준(IEC 62885-2:5.11절)에 따라
측정한 지수일 뿐이며 실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삼성제트



우리집 맑음 가전
삼싱가전

청정스테이션

에너지효율 가전 확인하고 환급 혜택 누리세요

*한국 에너지관리공단 주관 에너지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사업(2020.3.23~12.31, 사업비용 소진시까지)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http://rebate.energy.or.kr>) 또는 구매처에 문의 *해당모델에 한함